

넷째 천사 사역

#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식일 학교

2017년 8월 11일

## 요약

1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
2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른 삶 - 1부 .....	15
3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른 삶 - 2부 .....	29
4 저주로부터의 구원 - 1부 .....	40
5 저주로부터의 구원 - 2부 .....	53
6 저주로부터의 구원 - 3부 .....	69
7 채택 - 1부.....	83
8 채택 - 2부.....	91
9 채택 - 3부.....	101
10 성령은 구원을 쉽게 해줍니다.....	108
11 진리에 순종함.....	120
12 십자가의 메시지.....	134
13 십자가의 영광 .....	148

## 1 진정한 복음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황금절: “만일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8)

### 일요일

1 바울은 사도가 되었으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아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2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3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4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으니

5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처음 다섯 절은 인사말을 구성하며, 이 구절은 전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다른 글이 없었다면 여기서는 충분할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 우리가 이 단축된 부분을 그토록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연구했다면

마치 그것이 유일한 성경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무한히 강화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도의 중간.

사도직 -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확신

보내신 이의 권위에 비례하고 보내신 이의 담대함을 의지하였느니라

이 권세와 권세 안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시니라”(요한복음 3:34). 바울은 권위 있게 말하였고 그 말은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7). 그러므로 이 서신이나 성경의 다른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저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조건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가마다 맞는말이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고유한 개성을 유지합니다.

다른 일을 해라.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명을 정하였느니라(벧전 4:11)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화목한 사람은 다 말씀과 성령을 받았느니라  
화해의 직분을 맡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을 닮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구하십시오(고후 5:17-20).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강력한 안전 장치입니다  
우울증과 두려움에 반대합니다. 지상 왕국의 대사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왕이나 통치자의 권력에 비례하며, 기독교인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형  
아버지와 아들은 여기에서 평등의 관점에서 연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30) 둘 다 보좌에 앉는다(히 1:3; 계 3:21). 평화의회  
그것은 둘 사이에 있을 것이다(속 6:12, 13). 예수님은 전 생애에 걸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는데  
성결의 영을 따라 그의 성품이 아들로 나타내심을 받았느니라(롬  
1:3 및 4). 이 서신은 바울의 사도직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에게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가지셨느니라.

1) 갈라디아서가 누구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3)

↑: \_\_\_\_\_

## 월요일

갈라디아 교회들 -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프랑스라고 알고 있는 영토에서 온 수탉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3세기에 그곳에 정착하여 그 지역에 갈라디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명한  
그들은 영국의 드루이드교와 매우 유사한 종교를 가진 이교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행 16:6, 18:23). 갈라디아의 나라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했던 도시인 이고니온, 리스트라, 더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행 14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남성. 주님은 결코 헛된 찬양을 공식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말은 창의적이며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도록 확장하신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문구를 말할 때 너에게”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보내시며 정의와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모든 남자들. 또한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 결코 예의나 단순한 예의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개인적으로 평화의 모든 축복을 가져다주는 창조적인 말로

신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 여자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누가복음 7:48, 50)

이 은혜와 평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정하여졌느니라.”

(에베소서 4:7)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과 생명은 “전체를 비춘다”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이라”(요한복음 14:6, 1:4, 9). “만물이 그 안에 있느니라”

(골로새서 1:17).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어찌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롬 8:32).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경건함은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덕”(베드로후서 1:3).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 우주를 받았고,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각 영혼에게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개별적으로도, 그의 모든 창조물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셨느니라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았습니다(히 2:9; 2).

고린도전서 9:15). “은혜와 은사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부어졌으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듯이

한 사람의 의 곧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의가 되었느니라”(롬 5:15, 18).

1)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요한복음 3:16)

↑: \_\_\_\_\_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동시에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 어머니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져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분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아니요; 각 어린이는 어머니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 같으리요

그의 사랑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완벽합니다! (이사야 49:15)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세상의 정의의 태양. 그러나 사람을 비추는 빛은 결코 그 빛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계몽시킵니다. 방의 조명이 완벽하게 켜져 있으면 그 공간에 있는 각 사람은

마치 그 장소에 존재하는 유일한 빛인 것처럼 기존 빛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빛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인간을 비춥니다. 에서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게 살아 계십니다. 씨앗을 심다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더 많은 씨를 얻을 것이요, 각각의 씨도 땅에 있는 것만큼 생명을 얻으리라.

그들은 진행했습니다. 참된 씨앗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 화요일

1)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5:14, 15)

↑: \_\_\_\_\_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애도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조건: '나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만큼 죄인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들은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했지만, 슬프게도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납의 보장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의심에. 우리의 승인은 이미 영원히 보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그것을 샀고, 이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누군가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걸 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품목을 수락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에 대한 그렇지 않고 제품을 계속 갖고 있으면 구매자는 '그걸 왜 나한테 주지 않니?'라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게 내 꺼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예수님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심 있는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모든 영혼에 대한 무한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 아들 사람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1:4, 6).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현재의 사악한 세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세상(“이 악한 세대”)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겁고 억압적인 짐처럼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선을 행하면 “내 속에 악이 있음”(롬 7:21)을 알게 됩니다. 항상 거기에 "이것이 현 악한 시대"라고 말하다가 절망에 압도되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24절).

해방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시다. 갇힌 자에게, 옥에서 흑암에 있는 자에게로 (사 42:7) 이에 맞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사 61:1) 선포한다. 그는 모든 죄수들에게 “나오라”(사 49: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입니다. “오 주님, 나는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이오니 주께서 나의 결박을 깨뜨리셨나이다”(시 116:16).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분을 섬기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봉대를 으깨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요일 5:4; 요 16:33).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전쟁이 끝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사 40:2).

당신은 내가 길을 잃고 비난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이후로 당신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위해 가시나무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송가로 내 사랑을 당신께 바칩니다.

1)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인도 받아 주셨습니까? (로마서 5:8, 10; 고린도후서 5:19)

↑: \_\_\_\_\_

## 수요일

하나님의 뜻 -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살전 4:3). 그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느니라(딤후 2:4). 그는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분의 뜻의 결정에 따라”(엡 1:11). 누군가가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보편적 구원을 가르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사람들이니라”(딤후 2:11).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  
그들 중 하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이를 거부합니다.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멸망당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장자권을 소유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누리는 것이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까지  
고난이 수반될 때에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롬 8:28; 고후 4:17).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되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내 안에 있사오니  
마음”(시 40:8).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조언입니다. 발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노예 상태;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나니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요일 5:14, 15).

이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이 그분의 것임을 인식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었습니다”(사편 100:3).

주님의 모범적인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권능과 영광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다”(요한복음 2:11).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는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모든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과시하는 정신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선포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계 14:7)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갈라디아서는 영원한 복음의 확립을 이룬다. 지난 며칠 동안 메시지가 설정되었습니  
다. 만약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될”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도다”(합 2:14).

## 목요일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엎고자 하는 것입니다.

8 그러나 우리 자신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이제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  
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남자를 “부르”었나요? “아들과 교통하도록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여”(고전 1:9). “또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베드로전서 5:10). “이 약속은 너희에게 있느니라. 어린이들과 모든 먼 데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불꽃”. (행 2:39).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위한 내용: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세계의 모든 주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느니라(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시는 것은 아니니라) 그가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 - 갈라디아 형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방법 그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긍휼히 여기사 사람들을 부르셨느니라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정규화된 구성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의 상황'이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고려사항은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그분의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가? 바나바가 있었을 때 그는 안디옥에 가서 형제들에게 “주와 연합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지내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1:22, 23) 그것이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성읍 초기.

주님을 버린 사람들은 확실히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은 이방인, 말하자면 이교도들이다(엡 2:11, 12). 갈라디아 형제들은 이려했습니다. 이교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출 때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던 옛 생활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 - “다른 복음”이 어떻게 길을 열 수 있습니까? 진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 1:16)입니다. 신 자신 그것은 능력이며, 그분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복음”으로 전달되려면 구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죽음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복음”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 죽음에 대한 약속은 절대 맞지 않을 거야 개념. 그러므로 거짓 교리가 복음으로 통과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는 어떤 것을 향하도록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외에 다른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그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복음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어떤 것의 출현이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로써 다른  
갈라디아인들이 유혹을 받았던 복음은 다른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왜곡된 복음: 위조요 속임수입니다. 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정통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과연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가? 운전해서 가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정죄에 이르고 구원을 얻기 위해 거짓된 것을 믿게 됩니다. 반면  
갈라디아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힘. 그러나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시 11:1).  
49:7과 8). 그리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영원하신 분에게서 멀어진다”(예레미야 17:5). 저주를 가져오는 것은 확실히 된다  
젠장.

“맹인을 길에서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명기 27:18). 빌어먹을 일탈이라면  
육체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얼마나 더 확실하겠는가! 거짓 구원으로 사람  
들을 속이고, 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닥이 없는 심연 위에 집을 짓게 하십시오.

하늘에서 온 천사 - 그러나 “하늘에서 온 천사”가 다른 천사를 전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물론 천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장관들 역시 별로 그렇지 않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느니라”(고후 11:14, 15).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자신이 죽은 자의 영이라고 주장하며 저승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  
변함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다른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그들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요일 4:1). “율법과  
증언을 위하여! 만일 그들이 그에 맞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벽이 되니”(사 8:20).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붙잡고서는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1) 복음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7:17)

↑: \_\_\_\_\_

## 금요일

10 이제 내가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설득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만일 그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 3세기 동안 교회는 이교주의로 인해 누락이 되었습니다.

개혁, 그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를 기쁘게”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주교들은 이교도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복음 원리에 대해 높은 표준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 부패.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의 밑바탕에는 항상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주교들 그들은 (아마도 종종 깨닫지 못한 채) 주변에 제자들을 끌어들이기를 원했습니다. (행 20:30). 그들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고 왜곡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는 혼자서 기쁘게 해야 했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서비스 부문에 적용됩니다. 너

남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직원은 결코 좋은 직원이 될 수 없다.

작업이 보일 때만 잘 작동하고 모든 작업을 최소화합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피조된 자들아, 순종하라.

모든 것을 자기 땅의 주인에게 돌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마음으로 행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2-24).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잃지 않기 위해 진실의 가장자리를 누그러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념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돈이든 지위든! 모두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남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례하거나 무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배은망덕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영혼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의 기분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복자들을 보여줘야 해

완전한 사랑이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특성입니다.

1)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2, 디모데전서 5:1과 2)

↑: \_\_\_\_\_

---

---

## 토요일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12 내가 이것을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낸 자라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뜻이 없느니라 그것은 분명하다

그가 가져온 메시지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출생과 교육을 통해

복음을 거스르고 그가 돌이켰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형

주님께서 친히 길에 나타나셨는데, 그 때에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위협과 죽음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도들(행 9:1-22)

개종 경험이 동일한 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원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바울처럼 그들도 회심해야 합니다. 약간의

그들도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계시가 될 것이다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모든 자녀는 다음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다”(사 54:13).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듣는 사람마다

아버지께 배워 내게로 오라”(요한복음 6:45). “너희는 그에게서 받은 기름부음을 그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요일 2:27).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데 너무 많은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인간 대리인.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교사 등을 두셨습니다(고전 12:28). 그들 모두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으므로 그것을 직접 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그들은 진리를 보거나 듣자마자 진리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한 사람의 권위에 의지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할 것이다

정말.

우리는 진리를 너무나 확신하여 진리를 어떻게 붙잡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나 누군가가 매우 존경하는 어떤 학자의 이름을 언급하면

믿음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이 확신시키려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것,

당신은 당신이 공언하는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아는 것은 모두의 특권입니다(João

8:31과 32).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진리를 붙잡을 때, 열 가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위대한 이름을 천 배나 만 배나 더해도 깃털 하나의 무게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권위; 왜냐하면 그녀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그녀를 조금도 폄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에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바울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계시라기보다는 “예수의 계시”이다.

그리스도".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사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영광의 소망(골 1:25-27)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알려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시며, 선포하는 일에만 국한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죽을 육체. 그분의 임재의 향기가 없이는 설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예수께서는 바울이 이교도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관해 설교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로서”(고후 4:5).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는 너무 “억압되어” 그분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에.

지금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저항이 멈출 것입니다.

1)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15-17)

R. \_\_\_\_\_  
\_\_\_\_\_  
\_\_\_\_\_  
\_\_\_\_\_

## 2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른 삶 - 1부

---

황금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28).

### 일요일

1) 바울은 자신의 달음질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신의

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갈라디아서 2:2)

1 십사 년 만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 나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 특히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헛되이 달렸는지 아닌지.

3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는 아직 부득이한 일을 하지 못하더니 할례를 받으십시오.

“14년 후.”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14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이 나온 지 몇 년 후, 그 일은 다시 3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회심. 그래서 그 방문은 그가 태어난 지 17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개종, 또는 원할 경우 서기 51년 공의회와 일치하는 날짜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된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제와 그로부터 도출된 내용.

첫 번째 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방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과 거짓된 교리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자신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복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다른 곳에서 왔다고 읽습니다.

유대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에게 '너희가 그 규례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아니하면

모세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된 형제 대신에 형제들에게 설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새로운 전파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려”(갈 3:13) 그것을 저항했습니다.



2:5). 사도들은 거짓 형제들과 “심각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도행전 15:2) 논쟁은 정통 복음과 가짜 복음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비교함

1) 거짓 형제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사도행전 15:1)

↑: \_\_\_\_\_

\_\_\_\_\_

2) 참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수단으로 구원을 받는가? (에베소서 2:8)

↑: \_\_\_\_\_

\_\_\_\_\_

## 월요일

그리스도를 부인함 - 안디옥 교회의 경험을 살펴봄

새로운 복음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에 대한 단언적인 진술.

복음은 디아스포라에서 온 형제들에 의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형제들은 “왔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헬라인에게 말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라. 그 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자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사도행전

11:20 및 21). 그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이 주를 전도하니

금식하고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행 13:1-3) 그러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깊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그들은 주님과 성령의 음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이 형제들이 도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았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모든 믿음과 성령의 모든 증거는 성령의 표가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그들은 믿음 없는 할례의 표를 믿음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느니라  
외부 표지판.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의 법칙 전체에 대한 공격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정통적이고 명백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4 이는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  
려 함이라

5 우리가 그에게 한 시간이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첫 장에서 거짓 형제들이 “그들을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7절). 님이 보낸 편지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우리 없이는 아는 것이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자기 욕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흐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행 15:24).

그 수업이 계속해서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었어  
사도는 자신의 일에 자신을 바친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죄함을 받았느니라”(갈 1:8, 9 참조). 이 설교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여 신자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너희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문자 그대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그들은 구원을 단지 인간적인 것, 능력에 의존하는 것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인간. 그들은 할례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이나 할례는 표면적 육체에 있지 아니하니 오직 유대인이  
이면에 있는 할례와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닌 영에 있는 마음의 할례와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 (로마서 2:28, 29).

1) 사람의 구원에는 누구의 능력이 작용하는가? (빌립보서 2:13)

↑: \_\_\_\_\_

---

---

## 화요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뢰한 후에 사라의 음성을 들었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여  
자신의 육체로(창 16장).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상속자를 얻는 대신,  
노예를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권면하셨다.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행하며 그분의 언약을 그분께 전했습니다. 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실패를 기억하고 육신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을 받았습니다.  
할례, 육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이것은 다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육체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 죄를 없이”(골 2:11)할 때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니라.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느니라”(빌 3:3).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참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할례를 받은 것은 표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인침이니라.  
무할례시에 가졌던 일이니라”(롬 4:11). 외적 포경수술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는 단순한 외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후자가 누락된 경우,  
신호는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포경수술이 현실이라면,  
외부 신호를 감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니라”  
할례를 받았느니라”(롬 4:11). 거짓 형제들은 현실을 대체하려 했고  
빈 기호로 그들에게는 호두 껍질이 껍질이 있는 호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요한복음 6:63). 안디옥과 갈라디아 형제들  
그들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신뢰하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물로. 그들은 그들에게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스스로 의롭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의미함  
법을 지키세요. 그러나 참된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새긴 법이요,  
거짓 형제들은 신자들이 할례의 외적인 형태를 신뢰하도록 추구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의 표시로 제공되었던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독선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주장  
형제들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스스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람이 의롭다고 믿으니라”(롬 10:10),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23).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열렬하고 성실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들은  
유일한 결과는 불완전함, 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베드로는 의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니라 자기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도리를 주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부모도, 우리도 질 수 없는 멩에를?” (행 15:10).

바울이 거짓 형제들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노예 제도의 멩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탐지하려고 은밀히 갔으니  
우리를 종으로 삼으소서”(갈 2:4).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당신의 삶은 “완전한 율법”입니다  
- 자유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죄로부터의 구원(해방).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로마서 7:12) 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확한 주소를 알려 주지만 그 장소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 표시기입니다.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그분이 길이시므로 그분 안에서 걷자. 죄는 노예입니다.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은 자유로우며(시 119:45) 계명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계명(롬 8:3, 4).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멩에를 메워서 종으로 가두었느니라. 죄수일 때  
율법에 따르면 그가 갇힌 사람은 자기를 정죄한 그 법으로는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 법에 불완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것은 공평한 법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무죄로 선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현재 갈라디아 형제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직면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다야 갈라디아서에는 가장 순수한 표현의 복음이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법에 관한 논쟁과 토론"에 대한 추가 기여일뿐입니다. (디도서 3:9) 바울 자신도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 참된 복음에 따르면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게 된 것처럼 정의를 실천한다고? (로마서 1:17)

↑: \_\_\_\_\_

## 수요일

6 유능해 보이는 자들은 (다른 시대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게 유능해 보였던 이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7 오히려 그들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과 같이 나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맡기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논의된 주제에 관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폴 그것은 “계시로”(갈 2:2)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 여러분, 바울과 그들 모두 같은 성령께서 그를 이 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진실을 배우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된 것이요, 그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라. 그 대회에서 중요해 보였던 사람들은 그 대회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폴 복음을 아무에게서도 받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자의 증거도 필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진위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말하면 남자 측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영형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의 증언을 듣도록 마련하셨고,

최근에 회심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알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으므로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 후  
“신이라 불리는 많은 것”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리는 하나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복음이라는 확신입니다.

복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은혜와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를 인간에게 베풀고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형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가르침도  
그림의 이미지든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 사물을 신뢰하도록 유도합니다.  
다른 것, 심지어 어떤 노력, 구원을 위한 일 자체를 신뢰하는 것,  
비록 그러한 노력이 가장 칭찬할 만한 목표를 향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  
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성례전이 없습니다.  
어떤 마법의 작용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느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을 통해.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여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8-10). 이것  
이 바울이 옹호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위한 복음입니다.

1) 복음의 메시지는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바뀔 것인가?

(계시록 14:6)

ㅏ: \_\_\_\_\_

\_\_\_\_\_

2)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가?

(갈라디아서 1:9)

ㅏ: \_\_\_\_\_

\_\_\_\_\_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을 보십니다. 영형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는 그것을 보는 눈에 크게 좌우됩니다. 무엇  
참으로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신이 아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입장을 제시하는 권위. 지위도 없고 겸손한 사람도 적지 않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 지구상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고 권세가 더 크니라. 권위가 온다  
제한 없이 영혼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 목요일

8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의 직분을 이루신 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게도 역사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효력이 있습니다(히 4:12). 직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복음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느니라”(행 10:38).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행하라”(요한복음 5:30),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한복음 14:10).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을 가리켜 “이적과 기사와 기사로 너희 가운데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행하신 표적들입니다”(행 2:22). 그 제자가 그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선생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큰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니라”(행 15:12).  
바울은 “각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씨름”(골 1:28,  
29). 가장 겸손한 신자들도 동일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1:1).  
2:13).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를 만드셨느니라  
좋은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9 또 내게 주신 은혜 곧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알므로 우리에게 오른손을 내어 나  
와 교제하며  
바나바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 오직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니 나도 이를 위하여 힘썼노라

예루살렘 형제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확인하고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폴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증거  
누군가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성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인식하십시오. 다른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바울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비록 당신의  
일하는 방식이 그들과 다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느니라  
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표시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도 이를 가까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온전한 연합 - 사도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이므로 교회 곧 진리의 몸속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음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차이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물을 볼 수는 없다.  
같은 방식'이라는 댓글이 자주 달린다. 그들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잘못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니라.” 오직 “믿음은 하나”(5절)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주님도 한 분이시니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빛이다. 시각 장애인만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빛의 화려함. 사람은 다른 종류의 빛을 알지 못하지만  
램프에서 나오는 빛을 제외한 인공 조명은 다음을 즉시 인식합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보여지는 전등을 방출합니다.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식의 정도는 다르지만, 지식의 정도 사이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지식. 모든 진실은 하나입니다.

1)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은 언제 믿게 될까요? (요한복음 17:21-23)



†: \_\_\_\_\_

\_\_\_\_\_

\_\_\_\_\_

## 금요일

11 그리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대면하여 맞섰습니다.

12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후에 그는 할례당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서 물러나갔다.

13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걸모습을 나타내니 바나바도 그들의 걸모습에 유혹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한. 이것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증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결코 “사도의 우두머리”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는 결코 교황이 아니었고,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감히 신부, 주교, 추기경에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공개집회 전 교황과 '대면'!

그러나 베드로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자기에게 한 책망을 온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실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만약 그랬다면

눈에 보이는(인간) 교회의 머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영에는

분명히 바울의 말이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파송되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후자는 교회의 아주 작은 부분을 구성했습니다. 너

이방인 개종자의 수는 빠르게 그들보다 많아졌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위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연스럽게 눈이 쏠린 바울의 행위의 열매를 더 많이 측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무겁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고후 11:28). 그러나 무오류

그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며 바울도 그것을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약한 자들을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요 너희는 형제니라”(마태복음 23:8).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모두가 서로 복종”하라고 권고합니다. (벧전 5:5).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알아보셨습니다. 없음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음이라”(행 15:8, 9).  
왜? 마음을 알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음이라”(롬 3:23, 24). 하지만,  
주께서 베드로의 눈앞에서 그에 대하여 증거하신 후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며 성령 주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거룩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  
그들을 충실히 옹호했다는 것; 국회에서 확고한 증언을 한 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 후에도  
자신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시다 - Pedro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그러한 자유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러났고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떠났습니다.” 이걸 내가 말했듯이 '위선', '위선'이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악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혼란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페드로  
그 당시 그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진리와는 반대로 -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에게도 닿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그들의 위장에 가담하였으니  
그리하여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속았느니라.” 확실히 “그들은 걷지 않았다.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른 것입니다”(14절). 하지만 그 단순한 행위는  
위장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완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문맥은 다른 문맥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험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와 같은 실수에 빠지고 재판관으로 자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과 그 결과를 경고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14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좇고 유대인을 좇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베드로와 그와 동행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가상의 행동이었는지 주목하십시오.  
고의적이지 않은 것 -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포경수술 논란이 불거졌다  
지금 막 장소. 그것은 칭의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오직 구원받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가, 아니면 외적인 형태로 말미암는가? 증언은 어떤 의미에서든 명백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거짓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충성스러운 형제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방인 신자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 안에  
실제로 그들은 “네가 모세의 법대로 네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행동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할례와 율법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것. 그녀 자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거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직설적으로 다루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1) 우리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 혹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3:28, 에베소서 2:8)

↑: \_\_\_\_\_  
\_\_\_\_\_  
\_\_\_\_\_

## 토요일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중에 죄인이 아니니라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써 의롭게 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방인 죄인이 아닌 유대인 죄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든 간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므로 죄인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직접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공허한 형식을 따르며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를 받았느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으니 이는  
죄인을 구원하라 죄인 중에 내가 과수니라”(딤후 1:15).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으라”(누가복음 15:2). 죄인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인 죄인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세례의 형식을 받은 죄인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죄인보다 낫습니다. 죄는 죄이고,  
죄인은 교회 안팎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는  
우리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사(요한1서  
2:2). 신앙을 고백하는 불신자에게도 희망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도 부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전파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에 유용합니다.  
세상의 죄인과 교회의 성도들을 회심시키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롭게 하십시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의 뜻은 “의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라틴어 정의(Justitia)에서 유래합니다. 장차 ~가 되는  
공정한 것은 곧은 것입니다. 여기에 라틴어에서 유래한 Ficar라는 어미를 추가합니다.  
"할 것". 확대하다: 크게 하다. Dignify: 가치 있게 만들다 등. 정당화하다: 정의를 행하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에 대해 결백한 사람에게 "정당화하다"라는 용어를 적용합니다.  
부당하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공평하기 때문에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거나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입니다(롬 7:21; 9:39, 31, 시 119:172 참조). 파울로는 감사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자기는  
그 자체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인해 아프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죄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죄를 정죄했습니다. 율법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롬 8:3, 4).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선언하는 율법은 다음과 같이 단언함으로써만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가 아니라 모순이 될 것이다.

그럼 법을 무효화할까요?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은 기쁨으로 죄를 행할 것입니다. 그들을 유죄로 선언하는 법.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폐할 수 없느니라. 그것은 그분의 삶이자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롬 7:12). 기록된 율법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죄입니다.

또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을 지킬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구 사항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는 것이 확실하여도 법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이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 믿음으로 마음에 거하면 율법의 의도 거기 거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시편 40:8). 율법을 버리는 사람은 악을 선한 것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출 34:7) 하나님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즉, 조화를 이루게 하라. 법으로. 한때 그를 정죄했던 율법이 이제는 그의 의로움을 증거합니다(롬 1:10 참조). 3:21).

### 3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른 삶 - 2부

---

황금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법;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16)

#### 일요일

1)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까?

(로마서 6:12)

↑: \_\_\_\_\_

---

---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원문에는 16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히 12:2)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롬 10:17).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롬 12:3)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그 분이 다 회개와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만 “믿음이 약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고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척하는 다른 모든 것은 위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십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셨으니 오직 그만이 하실 능력이 있느니라 이것.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합니다. 이는 율법이 그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고 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그분의 믿음으로만 - 믿음 살아 있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시험한 돌”이십니다(사 28:16).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직접 시도하고 승인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비록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도록 권고받습니다.

그분께서 행사하신 만큼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사랑을 위해 일하고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그는 그것을 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요한복음 1:12).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의 것을 믿는 자니 이름.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그것은 그분이 육체로, 인간의 육체로, 우리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한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살면서 그분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 자신의 방식으로 행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엡 3:20).

1) 그리스도의 믿음,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받은 자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14, 요한일서 3:9)

↑: \_\_\_\_\_

---

---

2)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라도 신자가 의지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이런 믿음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2:1, 2)

↑: \_\_\_\_\_

---

---

월요일

17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냐 어떤 면에서는  
없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행 3: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제거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다”(요일 3:5).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베드로전서 2:22),  
죄를 알았습니다(고후 5:21). 그러므로 그에게서 어떤 죄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상처난 옆구리와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에서  
쏟린 마음에는 더러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장관이 아니다.  
죄: 누구에게도 죄를 주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구하여 얻은 것이라면 죄를 더 짓느니라  
늦게 물의 흐름을 막아 물이 고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짜로 주지 않았어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영광을 받게 하십시오. 활동이 부족한 곳에서는 죽음이 찾아온다  
팝업. 이에 대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자가 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2). "모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 아니요  
그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요일 3:9) 그러므로 “남아라.  
그 안에."

18 내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세우느니라  
위반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무너뜨리고 버리면 자신을 재건하기 위해  
나중에 그는 다시 범죄자로 구성됩니다. 또 빠졌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는 죄의 몸이  
멸망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읽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완전하라. 당신도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체를 벗는 할례니라  
죄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느니라”(골 2:10, 11).



멀하는 것은 죄의 몸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소 임재함뿐이나라  
그것은 그것을 파괴합니다. 이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  
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멸망되었나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폐하셨으니  
자신의 육체 "죄의", 곧 육욕적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우리의. 그분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없애셨습니다. 그분은 온 영혼을 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영형  
적은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승리  
모든 죄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도록 합니다.  
믿음의 상실은 우리를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의 옛 몸이 다시 나타납니다.  
믿음이 무너뜨리는 것은 불신으로 인해 재건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죄의 몸이 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루셨으나  
그것은 개인으로서 현재에 속합니다.

## 화요일

1) 우리 삶에 다시 죄를 심으면 우리는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요한일서 3:9, 10)

↑: \_\_\_\_\_

2)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다시 영접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37)

↑: \_\_\_\_\_

19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문구가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죽게 놔둬라'.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법은 누군가가 법으로 인해 죽기 전에 완전한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처럼  
누군가가 "법에 죽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의 형벌의 충만함을 받으심은 곧  
죽음. 개인은 죽었으나 그를 정죄한 율법은 그토록 유효하고 기꺼이  
다른 죄수를 첫 번째 죄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처럼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처형된 최초의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법에 죽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과거 행위 중 어느 것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또 다시 법을 어기면 법은 그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시 처형할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나에게 율법을 부과한 죽음에서 부활하여 나는 이제  
“새 생명”: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에 대해 말할 수 있듯이  
그 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삼상 10:6). 그러한 것은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일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지 아니하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어떤 식으로도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바깥에 멀리 남아 있다면,  
잠시 동안, 비록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은 마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사람은 보지 마십시오.  
뒤로 또는 앞으로, 그러나 위쪽으로; 십자가의 팔이 높이 들렸기 때문에  
갈보리는 잃어버린 낙원에서부터 회복된 낙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전 세계를 포괄합니다.  
죄의 세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하루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계 13:8). 불안  
단 하나의 죄나 죄인이 있는 한 갈보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행위자들을 불못에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은 그들이 거절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로마서 6:11)

f: \_\_\_\_\_

---

---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벧전 2:24). 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갈 3:13). 십자가에 달려 계실 뿐 아니라  
인류의 질병과 죄뿐만 아니라 지구의 저주도 있습니다. 너  
가시는 저주의 낙인이며(창 3:17, 18),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저주의 모든 무게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상처를 안고 비참함 속에 길을 잃은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포함해서요. 당신의 불신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짐의 불쌍한 무게. 그러나 믿으면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온 세상의 죄. 죄가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안에서, 마음에서  
사람에게서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강탈과  
탐욕, 악, 기만, 나쁜 습관, 시기, 험담, 오만, 광기; 모두  
이런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막 7:21-23). “기만적인 것은  
마음이 만물보다 나고 패역하니 누가 이를 알리요”(예레미야 17:9). 죄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의 모든 점유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삶은  
죄는 생명을 빼앗지 않고는 죄를 근절할 수 없도록 하려 함이라  
그 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 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범한 죄뿐 아니라 마음속에 사는 죄도  
내 삶의 전체를 구성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니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와 분리할 수 없느니라  
나. 내가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까요? 예,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나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내 손으로 그를 내쫓으니 그가 데려가시겠느냐?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떼어놓으면 죄가 있는 곳에서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지 않는 한 멈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일 내가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디서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은 나 자신을 죄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나의 죄를 없애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나에게 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변명하려는 모든 죄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우며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을 이루게 하라”(신명기 30:11-14). 아직도: “입으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느니라

죽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 우리는 주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자백하다

진실로 그분이 당신과 매우 가깝고, 당신의 입과 마음 속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거기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가. 부활하신 구원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진리를 믿는 것뿐입니다.

즉, 행위를 인식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는 다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믿는 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그리고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만민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죄인. 그분은 죄, 모든 죄, 세상의 죄를 없애십니다.

1)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는가? (이사야 53:6, 7; 베드로전서 2:24)

↑:\_\_\_\_\_

\_\_\_\_\_

\_\_\_\_\_

금요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에게 모든 인센티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에서 의로 돌아서라. 그분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한복음 14:6).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되 모든 사람이 그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롬 1:18).

바울의 영감받은 갈망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여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대하여”(엡 3:16-19).

죄인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와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이다.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께서는 죽을 육체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권능과 신성을 믿는 신앙  
모든 창조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  
뿌려진 씨는 먼저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고전 15:36). “밀알 하나면  
그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이와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자기 자신을 짊어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개인적인 죄는요? 또 내가 어찌 지금 십자가에 못박히리이까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의 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기억할 때, “아버지와 함께 있던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요일 1:2),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 이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말씀은 온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었다.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이니라”(요한복음 1:4,9).

혈과 육(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마태복음 16:16, 17)은 “기록된바 아무 눈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고전 2:9, 10). 없음  
사람이 나사렛의 목수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더라도 그분을 주로 인정하라(고전 12:3).

성령을 통해 그분 자신의 개인적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땅을 채우는 것과 하늘을 채우는 것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떠나 보혜사를 보내신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라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골 1:17).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셨다. 고기. 태초에 있던 말씀. 만물이 그 안에 있게 된 이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다음과 같이 다스립니다. 세상의 창조.”

갈보리 장면은 예수님의 입성 이후로 일어난 일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는지, 마지막 죄인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되고 싶은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지금 가져가세요. 충분했다 영원히 죽음과 부활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삶은 전 세계의 모든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의 제사에서 온전한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패자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유익.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위해 사셨습니다(요한복음 6:57). 하나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분께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내실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영을 손에 맡기노라”(눅 23:46). 죽음을 이기게 한 믿음은 또한 죄에 대해서도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살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8)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니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 자체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과 같은 마음을 너희 안에도 품으라 예수”(빌 2:5).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시니라” 정말 개인적인 표현이네요! 나는 사랑의 대상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으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바울은 죽었으나 그의 말은 살아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옳았어 그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인간에게 적용될 때와 비슷합니다. 는

우리가 받기로 동의하면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의 선물의 충만함은 각 개인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누어지지 아니하셨으나  
각 영혼은 마치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충만하게 영접합니다.  
모든 사람은 빛나는 빛의 전부를 받습니다. 수백만 개가 있다는 사실  
햇빛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비추는 햇빛을 어떤 식으로든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언다  
그것의 완전한 이익. 거기에 나 혼자라도 더는 받지 못할 거야  
세상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내가  
그는 지구에 거주했던 유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맞아요  
모든 죄인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을 심으면 처음보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들 각각은 원래의 씨앗을 가졌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정한 씨앗이신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참된 씨앗이 되도록 각 사람에게  
그의 삶 전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후 9:15).

## 토요일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법에서 나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아무도 없다면  
만일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는 헛되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확실합니다. “너희는  
그의 후손은 그의 날을 연장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는 자기 영혼의 소행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사 53:10, 11).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영혼 노동의 결실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2절)  
고린도전서 6:1).

1) 의와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가? (로마서 3:24;  
에베소서 2:8)

↑: \_\_\_\_\_



## 4 저주로부터의 구원 - 1 부

---

황금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마서 1:17).

### 일요일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인들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방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어느 때든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것이 없었듯이 독특합니다.

복음의 위조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았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비록 우리의

그러나 할례 의식의 주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 자체, 인간의 행위가 참여하는가, 아니면 단지 구원인가 하는 논쟁

갑소사,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류를 공격하고 강력한 논증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사도는

토론 중인 주제를 설명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구원은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작품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음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갈 2:21; 롬 8:3, 4). 하지만

동일한 사실이 법의 정의를 입증합니다. 디테일이 부족한 경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나타내시되

또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위엄과 거룩함을 증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으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법이 폐지될 수 있고 그 요구사항이 조금만 충족될 수 있다고 가장함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는 율법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정의는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은 무한한 위대함과  
법의 신성함

1)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폐하시는가?

(로마서 3:31)

↑: \_\_\_\_\_

---

---

## 월요일

1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는데 누가 너희를 매혹하여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하였느냐?

바울은 문자 그대로 “누가 그들을 매혹하였는가”라고 썼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숫양의 기름보다 당신을 더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반항은 죄와 같으니까  
마술과 다툼은 죄악과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삼상 15:22, 23). 히브리어에서는  
문자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역의 죄는 주술이요, 다툼은 반역이요 우상 숭배니라.”

왜? 반역과 다툼(오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악마 숭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라”(고전 1:1).

10:20).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30). 즉, 주님을 거부하는 불순종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갈라디아 형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아마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 채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매술에 대한 보호 - 영매술은 고대 마법이나 요술을 가리키는 또 다른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종류의 사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현실이 있습니다. 의도한 것부터 사기입니다.

죽은 자의 영과의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오직 영과만 소통을 유지하십시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악마에 관한 것입니다. 영매가 된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악마의 통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WHO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황에서 영성주의를 비난하는 것조차 더 활기차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것을 멈춘다면, 조만간 당신은 가짜 그리스도의 강력한 유혹에 속았습니다. 굳건히 서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는 다가오는 시험의 시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계 3:10).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엡 2:2)은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것(롬 1:16, 17)만이 가능한 유일한 구원이다.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묘사가 너무나 생생해서 갈라디아인들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으로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분을 보십시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수사법도 아니고 그들의 상상도 아닙니다. Paul을 다음과 같이 사용 도구인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인들의 경험은 그들에게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는 현재의 사실이다.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는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기 전에는 누구도 복음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네 눈앞에서 각 지체에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누군가는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각 장애인이 태양을 볼 수 없고 그것이 빛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빛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언급하는 사도의 말은 그 이상입니다. 간단한 비유.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서신 연구가 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 화요일

2 나는 당신에 대해서 다만 이것만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으로 받았습니까?

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나니 (요한복음 7:38) 그리고 39; 에페. 1:13).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면 주시니라”(고전 12:3).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이동하시며 생명과 창조 활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정신에는 행동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강제나 폭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영이니라”(슥 4:6).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다. 그분의 완전한 뜻을 이루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영혼에게 데려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력을 생산하여 스스로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삶의 숨결. 그래서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습니다. 눈 앞에 있고 성령으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수락했어요-오 당신도요?

### 3 너희가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느니라 고기?

"어리석은"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일을 시작할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일을 시작했다고 믿는다. 끝까지 할 수 있는 힘!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을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스스로를 생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우리는 우리를 낳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요 같은. 우리는 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힘을 그것은 우리 외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남자의 대표자. “한 사람이 세상에 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하나의 모든 힘 사람이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울부짖음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첫 호흡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작은 힘조차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기 뜻대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야고보서 1:18).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는 정의롭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히 3:14). "무엇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빌 1:6). 오직 그분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5:5)

↑: \_\_\_\_\_

\_\_\_\_\_

2)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13)

↑: \_\_\_\_\_

\_\_\_\_\_

## 수요일

4 여러분이 이토록 고생한 것이 헛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도 헛된 일이었다.

5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 믿음의 말씀에서나

이러한 질문은 갈라디아 형제들의 경험이 그와 같았음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의 기대만큼 깊고 진실함

십자가에 못박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며

그들 자신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이 생생한 복음의 결과로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느니라”(딤후 3:12).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높인다. 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이제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로부터의 분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진실의 법칙.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법.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5절에 제시된 질문에는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베풀어지시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들음으로써 그렇습니다. 곧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롬 10:17). 바울의 사역과 갈라디아인들의 경험은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경험과 완전히 일치하느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형제들”, 즉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 그들은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여겼느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의 할례를 증거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 것은

그렇지 아니함을 증명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니라

정당성".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도 믿음으로 인한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롬 4:11). “...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갈 3:7).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롬 4:2, 3), 그의 믿음은 의를 이루었습니다.

1) 하나님 앞에 참 유대인은 누구이며, 참 할례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2:28, 29)

↑: \_\_\_\_\_

\_\_\_\_\_

오늘날에도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호가 실체와 혼동되어 끝  
수단으로. 정의는 선한 행위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으로 추론됩니다.

- 선행은 의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함”에서 나오지 않는 선행은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고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주는 약을 먹어라. 그에게 주어진 어떤 조언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과 정의가 있느니라(사 45:24).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가장 많은 것을 이루시리라”(시편 37:5).

아브라함은 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요, 오직 그들만의 조상이니라. 유일한 것

참으로 실용적인 것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이나 행위를 통해 인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로마서 1:17)

↑: \_\_\_\_\_

\_\_\_\_\_

7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들은 주의 깊게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해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많은 오류 중.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a) 그들은 복음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b) 그것을 전파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실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

(c)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없다.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것과는 다른 복음;

(d) 오늘날의 복음은 옛날에 존재했던 복음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하나님께서도 오늘날에도 예전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실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는 이교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신들”(수 24:2)이었고, 복음이 그에게 전파되기 전까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베드로 시대에 전례 없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폴. 유대 민족은 이방인 중에서 취하여졌으니 이는 오직 의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생존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사도행전)

15:14-18; ROM. 11:25 및 26).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증거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행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가 이교도들과 우리를 근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떤 이방인도 구원을 바랄 수 없느니라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구원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3)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29 및 30)

↑: \_\_\_\_\_

\_\_\_\_\_

\_\_\_\_\_

## 목요일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이전 것과 유지하는 긴밀한 관계에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설교를 받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조건 하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교도", "온유한", "국가"(8절)는 같은 단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 어. 이 축복은 사도행전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선물로 구성됩니다. 3:25, 26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모든 족속이 그 씨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지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때에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모든 사람이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다른 복은 없나니 이 사람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받은 것 외에는. 그리고 전파된 복음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고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믿었으며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행 4:12).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습니다. 피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골 1:14). 죄 용서에는 모든 것이 따르다 축복.

1) 죄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24, 26)



↑: \_\_\_\_\_

---

---

대조: 저주 아래 - 구절에 나타난 대조를 주목하십시오

아훅과 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믿음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율법의 행위가 가져오는 것은  
저주; 아니면 더 좋게 말하면 그들은 그를 저주 아래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겁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신 독생자이시다”(요한복음 3:18). 믿음은 이 저주를 되돌립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들은 그들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도시!”. “자기 행실이 온전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생님!” (시 119:1).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율법을 지키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도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계명.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정의를 위해 노력했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 많은 인간성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의를 가져올 것이지만, 우리를 정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믿는 것은  
큰 약속"을 얻으면 우리는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벧후 1:4).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정의, 그들은 정의를 달성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는 정의의 법을 구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의 행위: 그들은 걸림들에 부딪혔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시온은 걸림들이요, 걸림들이 되는 바위이니라.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게 될 것이다”(로마서 9:30-33).

1)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

ㅏ: \_\_\_\_\_

---

---

## 금요일

저주는 무엇으로 구성되니까? - 갈라디아서를 주의 깊게, 성찰적으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3:10 저주는 율법을 범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저주는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로마서 5:12). 죄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

“사망의 쓰는 것은 죄”(고전 15:56)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면 저주 아래 있느니라.” 왜? 법은 아마도

저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입니다.

(롬 7:12). 그러면 어찌하여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까?

율법의 행위? 기록되었으되 모든 일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혼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한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합니다. 아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롬 8:7). 모두는

저주 아래 있으며,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주”는 모든 일에 머물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추론하기 쉽습니다.

법.

1)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왜 저주 아래 있는가?

저주 받은? (로마서 3:23; 6:23)

ㅏ: \_\_\_\_\_

---

---

축복과 저주 -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축복이라면,

영원하신 분, 너희 하느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11:26-28).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법은 진노를 이루시느니라”(롬 4:15).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하느니라(엡 5:6).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안에 넣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조화, 하나님의 생명. “누구든지 온전한 율법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자는 자유 – 그리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귀머거리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근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행복[복]이 있느니라”(야고보서 1:25)

1) 사람은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18)

↑:\_\_\_\_\_

---

선행 – 성경은 선행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높여줍니다. “신실한 것은 단어. 나는 너희가 이것을 진실로 확증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런 것이 선하고 사람에게 유익하니라”(딤후 3:8). ↑  
믿지 않는 자들을 무겁게 하는 비난은 그들이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딤후 1:16).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에게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선한 일에 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딤후 6:17 및 18). 그리고 사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너희가 주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주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골 1:10). 더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일들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생산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분을 믿으십시오(시 31:19).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한) 6:29). 선한 일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분만이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최소한의 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멸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양들의 큰 목자시여 모든 선한 일에 양들을 온전케 하사 그의 일을 행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기쁘신 바를 너희 가운데서 이루시리라  
무슨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히 13:20, 21).

묵상하다 - 요한복음 6:28, 29

## 토요일

11 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읽을 때,  
“공정”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차 ~ 가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다”(요일 5:17).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요일 3:4). 그러므로 모든 불의는 위법이다.  
법; 물론 모든 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 곧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느니라.

정의로워지는 법 - 원하는 목적은 선의 실천이고, 규범은 선의 법칙이다.

하나님.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준행하여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진노인가, 저주인가?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느니라”(롬 10:10).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라. 왜?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의가 행위에서 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은혜가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롬 11:6). "무엇 때문에  
일을 하면 급여는 호의로 간주되지 않고 부채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정의”(롬 4:4, 5).

예외는 없습니다. 중간 경로가 없습니다. 일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믿음과 행함으로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의가 자기에게서 나온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같은. 모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롭게 유지됩니다.  
이는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율법의 숭고한 신성함 때문입니다. 힘만이

신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법.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책에나 돌판에나 기록된 율법이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무엇을 하는가 이것들은 그들을 위해 산다." 법은 이러한 조건에서만 생명을 제공합니다. 건설, 작동하는 것만이 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 사항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법 준수. 즉, 현재의 삶이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완전한 순종의 기록.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일 해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에베소서 2:1) 그는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며,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정하시고 받으시니 그의 생명의 모든 충만함이 살아 계시느니라 이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당신의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은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의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다음과 같이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며 마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법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잠 4:23).

## 5 저주로부터의 구원 - 2 부

---

황금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는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9)

### 일요일

1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음이니라

14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중심주제 다루기 - 이 서신에는 다음에 관한 논쟁이 없습니다.

법, 준수 여부에 관한 것; 그것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었거나, 그 효력을 상실했는지 여부. †

서신에는 이에 대한 조금의 표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은 준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칭의, 즉 의롭게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온다.

아니면 행위로?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으며, 그들이 얻게 될 유일한 결과는

저주는 죄인에게 더욱 고착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이루어졌나니

진정한 정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자랑하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였고

그는 율법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1) 정의란 무엇인가? (시편 119:172)

†: \_\_\_\_\_

2) 정의는 어떻게 실천되는가? (히브리서 11:33)

†: \_\_\_\_\_

---

3)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3:7)

†: \_\_\_\_\_

---

죄의 쓰는 것 -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주는 죽음으로 구성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그분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하실 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죄는 사망의 원인입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사망의 쓰는 것은 죄니라”(고전 15:56). 따라서 사실상,  
10절에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책”은 죽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불순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

“탐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느니라. 그리고 죄가 완성되면  
죽음”(야고보서 1:15). 죄에는 사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죄로 죽은 것입니다.  
범죄와 죄(엡 2:1). 생기 넘치는 책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의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요한복음 6:53). “쾌락에 굴복하여 사는 사람은  
죽었느니라”(딤후 5:6).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 즉 죽음의 몸이다.  
로마서 7:24.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가장 매력적인 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죽음으로 구성됩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책을 써서 그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 월요일

저주에서 구속됨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느니라.” 일부 독자  
이 구절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즉시 외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저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마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저주”에서 그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저주는 이미 불순종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안에 거하여 이를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안에” 보내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3, 4).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안심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 곧 생명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에게서 받았습니다(벧전 1:18).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표현에 담긴 힘을 주소서.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잘라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죄의 족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헛된 탄식으로 일생을 보내야 합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망.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된 소망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죄의 포로가 되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유! 감옥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가세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다 이 악한 세대 곧 육신의 정욕과 정욕에 대하여 눈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요”(요일 2:16),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불순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를 믿습니까? (요한일서 3:6, 9)

↑:\_\_\_\_\_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해진다 “그리스도께서 이교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롬 5:6).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내죽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4:25). 무죄하신 분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의로우신 분은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다 우리의 범죄를 꺾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입으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형벌이니라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걸었다  
양처럼 길을 잃었다.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행하셨느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사 53:5, 6). 이제 죽음이 들어왔느니라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 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었습니다(고후 5:21).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벧전 2:24). 우리의 죄가 “그분의 몸”에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당신의 작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갑자기 그분에게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유적일 뿐이지만 그들은 “그분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혐오스러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교도들에게는 그것은 광기이며,  
유대인은 거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고전  
1:23과 24).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만드셨다고 알려주는 동일한 성경  
우리를 위해 그는 자신이 “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동일한 구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 자기 안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에 이바지하시느니라  
불멸과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 모든 사람의 죄는  
그러나 그분에게서 죄의 가장 뚜렷한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 안에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평생 동안 어떤 죄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는 그분  
의 불용성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을 취하시고 흡수하셨습니다. 강력하다  
죄를 더럽히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모든 죄의 그림자에서 해방되도록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것은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활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간구와 간구를 드리셨으나  
그분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의 경건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분이 직접 주셨고, 다시 가져가시려고  
(요한복음 10:17, 18) 사망의 고통이 풀려났으니 이는 불가능하였음이나  
그 사람이 간직해 두었습니다”(행 2:24). 그 후에는 왜 죽음이 그분을 붙잡는 것이 불가능했습니까?

그가 자발적으로 그 권력 아래 놓였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지만 그 권세로부터 안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  
그의 형제들은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았느니라”(히 2:17; 4:15). 이후  
그분 자신은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으셨고(요 5:30),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패배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들렸습니다. 그만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넣었다.  
조약돌 같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노라 가까이 있는 것이 나를 정당화한다. WHO  
나와 다투겠느냐? 함께 참석합시다. 나의 대적은 누구인가? 도착  
나”(사 50:7, 8).

그분을 그토록 억압하고 그로부터 해방된 죄는 무엇이었습니다?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극복되었고 패배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패배한 적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의 죽음과 삶에 복종하여 그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이  
그분은 모든 죄를 지셨고 여전히 그것을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자이십니다. 당신은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고전 15:57).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은 어디서나 그분의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고후 2:14).

## 화요일

십자가의 계시 -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나무”는 우리를 주제로 다시 데려옵니다.  
2장 20절과 3장 1절의 중심: 무궁무진한 십자가.

이에 관해 일곱 가지 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 (1)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은 십자가로 이루어진다(갈 3:13).
- (2) 복음 전체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롬 1:16).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전 1:18).
- (3)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만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천하 사람에게 달리 있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을 얻었느니라”(행 4:12).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앞에 두신 것은 이것이니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이 알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그게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인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얻으면 모든 것을 갖게 된다.  
것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지 않으신다.  
사람의 눈앞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제공합니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나니 이는  
아무도 길을 잃거나 계속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4)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속자로 모든 사람에게 제시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인간은 저주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저주를 짊어지신 그분을 제시합니다. 거기  
저주가 숨겨져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녀를 안으셨는지 보았습니다.  
그가 가시 면류관을 취하였으므로 아직도 땅의 저주를 담당하노라  
땅에 저주가 선포되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라”(창 11:2).  
3:18).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이제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롬 8:19-23).

(5)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걸린 것은 그것이었음을 나타낸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내렸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승리자요 정복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6) 누군가는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  
그것은?! 가장 눈먼 사람이라도 자신의 증거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 불완전성은 저주입니다. 예, 그것은 저주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불완전함을 발견합니다. 그 남자는  
불완전하며 지구상에 계획된 가장 정교한 계획조차도  
세부적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우리의 불완전한 눈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개선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개선할 가능성을 전혀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  
다른. 정원사는 자신이 만든 과일과 꽃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권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가장 좋은 곳에서도 저주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결함이 있는 과일, 병든 잎과 줄기, 독성이 있는 식물 등에 대해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저주가 땅을 삼켰”습니다(사 24:6).

(7) 우리는 이로 인해 낙담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심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살전 5:9).

곳곳에서 저주를 볼 수 있지만 자연이 살고 인간이 산다.

그러나 저주는 사망이니 사람이거나 피조물이나 누구든지 사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죽음은 죽어도 여전히 산다. 왜냐하면 죽음은 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죽었으나 살아서

항상(계 1:18). 오직 그분만이 저주, 즉 죽음을 감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땅에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잔디밭에서, 모든 곳에서

숲의 나뭇잎과 모든 덩굴과 모든 나무와 모든 과일과 모든 꽃과

우리가 먹는 빵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의 몸. 우리가 보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

십자가의 복음, 즉 복음은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엡 3:20)입니다. 고려사항

로마서 1:16-20은 고린도전서 1:17, 18과 함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곧 우리 인간의 만물에도 나타나느니라

몸.

1) 만물과 모든 생명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1:17)

†: \_\_\_\_\_

## 수요일

낙담으로부터의 위로 - “수많은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악이 나를 묶어서 쳐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내 머리털보다 많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피곤하니라”(시편 11:1)

40:12).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깊은” - 오히려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의 확신의 근원을 찾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

죄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아래 있는 자도

저주하고 (모든 것이 그 아래에 있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취약함과 거리가 멀다

낙담의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약점.”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받았다”(롬 8:37). 확실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증거가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느니라”(요일 5:10).

1)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불멸성 외에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II 디모데 1:10)

↑: \_\_\_\_\_

---

참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불멸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삶.

저주에서 축복으로 -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몸에 가지고 다니면 주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라(고후 4:10).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 고린도전서 5:21). 그분이 짊어지신 저주를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은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는 율법을 범한 결과이다(갈 3:10).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행 3:26).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죄와 죽음을 당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울이 그의 다른 서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윗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함을 받았고 그 죄가 가려졌느니라.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시느니라”(롬 4:6-8).

바울은 계속해서 이 축복이 믿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된다고 설명합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도 이것을 받았느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11절).

축복은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저주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고려하면 저주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은 그 저주가 십자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축복.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살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와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였으니 생명의 의로움이니라"(롬 5:18). 사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니라(엡 1:3) 선물은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 -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죽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일을 하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욕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영형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전세. 이 진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의 시대에도 통용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 십자가가 갈보리산에 세워지기 700여년 전, 이사야는 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간증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평안의 형벌을 받았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 6). “내가 너희 허물을 안개 같이, 너희 죄를 구름 같이 닦아 버리리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사 44:22). 이사야보다 오래 전에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우리 죄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불평등.”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길도 우리에게서 멀다. 범법함”(시 103:10, 12).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느니라”(히 4:3). 그 축복은 우리가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느니라 선지자들: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엡 2:20).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충만하고 충만하며 완벽한.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짐을 지지 않으시며,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 목요일

1)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마련하셨는가? (II

디모데 1:9)

↑: \_\_\_\_\_

“성령의 약속”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 다음과 같이 읽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다: ‘... 선물의 약속을 받아 성령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언급되지도 않았고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원받았으며 이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것”으로 그분은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히 9:14). 그렇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구원. 성령은 죄와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요 16:8). “성령이란 무엇인가?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시니라”(요일 5:6).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증언하시니라”(10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시느니라 남자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간증을 받게 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주목하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영혼. 그러나 약속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그러나 성령의 축복(의로움)을 가지면 우리는 성령이 의인에게 약속하신 것 곧 영원한 기업을 얻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축복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의 보증, 즉 보증이십니다. 축복.

1) 예수님은 어떻게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능력을 입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0:38)

f: \_\_\_\_\_

---

2)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될까요? (이사야 4:4, 갈라디아서 5:16)

f: \_\_\_\_\_

---

기업의 보증이 되는 성령 -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함께함  
더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항상 더 많고 더 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 또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여 그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까지니라  
영광이다”(엡 1:11-14).

이 유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상속은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에게. 그리고 우리를 인치시는 성령  
아들의 명분은 이 약속된 기업의 보증이자 첫 열매입니다. 영광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즉 구속은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가 아니라  
(순종은 저주가 아니므로) 그러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세상의 힘과 축복을 미리 맛보십시오.

## 금요일

15 형제 여러분, 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사람의 뜻이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리켜 후손에게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이 너희의 후손 곧 그리스도라 하였느니라

17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 언약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백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하여 폐하지 못하였느니라



18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는 믿고 받아들였다. 의의 축복. 믿는 사람은 모두 믿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 “만일 그 기업이 율법에 달렸으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니라 약속의.”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분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참여하는 상속 재산입니다.

“And his Descendant” –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중요한 주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구원의 수단이다: 구원은 (1) 오직 그리스도?; (2) 다른 것을 위해서?; 아니면 (3) 그리스도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선하게 만들어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노력에 귀중한 도움이시며 좋은 조력자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 그들은 그분께 첫 번째 자리를 주지만 유일한 자리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세요 "두 번째 장소". 그 일을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들입니다. 그러나 연구된 텍스트는 모든 것을 제외합니다. 이 헛된 주장.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네 자손에게'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두 혈통은 없습니다 –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자손과 함께. “영적”은 “육신적”의 반대말입니다. 그들도 영적인 자녀가 아니면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영적인. 육신을 입고 사는 남자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그들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시니라”(롬 8:8).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고전 1:1). 15:50).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오직 한 계통뿐입니다. 단지 한 학급 참된 영적 후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라 (요한복음 1:12)

하나에 많은 약속 – 자손은 단수이지만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형.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나 약속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아멘'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사니라”(고후 1:20).

1)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까? (고린도후서 1:20-22)

↑: \_\_\_\_\_

2) 축복은 어떻게 받는가? (갈라디아서 3:9)

↑: \_\_\_\_\_

약속된 기업 - 갈라디아서 3:15-18에서 우리는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봅니다. 모든 약속의 총합은 상속입니다. 16절에서는 온 율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고 확정한 지 사백삼십 년이 지나도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만일 그 상속 재산이 율법에 달렸으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니라 약속하다”. 이 구절을 연관시켜 보면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것보다 먼저 이르되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율법으로 좇아 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나, 그 가운데서 오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롬 4:13). “하늘과 땅은... 심판과 악인의 멸망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날에 “하늘이 불타고 폴리먼 요소들이 함께 녹아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베드로후서 3:7, 12, 13). 아브라함과 이삭도 고대하던 하늘 본향입니다.

그리고 야곱.

저주 없는 상속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영은 새로워진 땅의 소유, 즉 저주에서 구원받은 소유이다. 왜냐하면 피조물 자체가 부패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니라”(롬 8:21). 최근 창조주의 손을 떠난 지구는 모든 면에서 새롭고 신선하고 완전한 것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창 1:1). 1:27, 28, 31). 사람이 죄를 범하여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수하셨다 인간과 모든 창조물의 모든 저주. 지구를 구원하세요

저주하여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든; 또한 사람을 저주에서 구속하여 이런 것을 소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산.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여”(롬 6:23). 이 영생의 선물은  
상속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니라”(창 17:8). 그것은 정의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을 따르는 의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  
의와 영생과 영생하는 곳,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약속하고 구성합니다. 없이 사람을 구원하라  
그에게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은 미완성 작업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작업은  
모두. 우리를 구속하는 권능은 하늘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권능이니라  
지구.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계 22:3).

## 토요일

약속의 언약 -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같은 것이다. 이 경우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언약을 파기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옵소서(8절). 갈라디아서 3장 18절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약속을 통해.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은 다름이 아니다.  
사람에게 약속하시되, “누가 먼저 그에게 주어 상을 받게 하였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 그를 통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롬 11:35, 36).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짐승 전체. 그들 중 누구도 보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창 9:9-16). 간단히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을 약속하십니다.  
선물(선물)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즉, 그분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에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심지어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꺼이 인정하고 협상에 힘쓰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조건, 즉 우리는 아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준된 언약 - 언약(인간에게 온 땅을 주겠다는 신성한 약속)  
그녀를 저주에서 구출한 후 갱신됨)은 “이전에 확인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1:20).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다(베드로전서 1:3, 4).  
기업의 첫열매와 성령의 소유는 그리스도니 곧 마음에 거하시는 이시니라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에서 떠날지어다(행 3:25, 26).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비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 맹세가 우리 소망의 기초니라  
우리의 “큰 위로”(히 6:18). 그들은 “확실하고 견고한 닻”(19절)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그리스도를 보증과 보증으로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다”(히 7:25).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느니라”(히 1:3).  
“만물이 그 안에 있느니라”(골 1:1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기를 원하셨을 때에  
약속의 상속자들은 자기 뜻이 불변함을 인하여 맹세로 개입하셨느니라.”  
(히브리서 6:17) 그분 안에는 우리의 위로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온 우주의 존재를 보증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희망을 위한 이보다 더 확고한 기초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강력한 말씀이요?

법은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조약과 약속은 일치하며, 그 안에는 새로운 지구인 지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주어진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정의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다는 약속에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우시다. 이 일은 약속이 확증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계약이라도 한번 비준하면 그 무엇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는 “언약”을 통해 영원한 의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느니라

사백삼십년 후에 공포된 율법이

새로운 요소. 아브라함은 약속을 통해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430년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속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부는 붕괴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는 끝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상속 재산과 의를 주겠다는 보증으로서의 존재

필수로 보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나 오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롬 4:13). 복음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충만하고 완전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더하거나 변경할 수 없느니라

그 조건 중 일부. 당시 존재했던 형태에서는 아무것도 뺄 수 없고, 아무것도 뺄 수 없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요구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 6 저주로부터의 구원 - 3 부

---

황금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24)

### 일요일

1) 신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가? (로마서 4:13)

↑: \_\_\_\_\_

---

19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정해진 것이니 천사들과 중보의 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니라.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복음에서 율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됩니다. 질문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우편 그 기업은 전적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지며 한번 확정된 “언약”은 변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사백삼십년 동안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나 후에?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기서 뭐하는거야?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된 것이 그 율법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는 그녀에게 순종했습니다(창 26:5).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출 16:1-4, 27, 28 참조). 그것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다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범죄 때문입니다.” “율법이 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롬 5:20). 즉, “계명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 죄”(롬 7:13).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위엄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가 되었느니라 그들은 약속된 상속 재산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좇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 하지만 상속은 “믿음에 속한 의로”(롬 4:13)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은 그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을 소유하는 데 필요합니다. 정의는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율법의 뒷받침[지원]”(롬 3:21). 간단히 말해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니었음을 보였고 그들은 상속 재산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하심은 그들도 그와 같이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상속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율법은 범법 때문에 주어졌느니라. 일) 백성들의 불신 때문이다.

자만은 죄이다 - 이스라엘 백성은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함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같은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후손들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주의 일을 이루겠느냐”고 물은 것보다 하나님”? (요한복음 6:28)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동등한 방법으로 그들 자신의 의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롬 10:3). 우리를 사랑 해주세요 만일 그들이 자기의 죄를 본다면 그 약속은 그들에게 헛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 법을 제시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율법으로인가, 믿음으로인가? (히브리서 11:6, 11)

↑: \_\_\_\_\_

---

## 월요일

중보자를 통하여 - 이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방식입니다. 그게 누구 였나 중재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딤후 2:5). 그러나 “중재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하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라”(고후 1:2).

5:19).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른 중재자가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안에

다른 구원은 없나니 천하 이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행 4:12).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함

“우리는 다 양 같이 그릇 행하여”(사 53:6).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킵니다(사 59:1, 2).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롬 8:7). 그리스도께서는 적대감을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엡 2:14-16).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의인들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불의한 자라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함이니라”(베드로전서 3:18).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1, 2; 에베소서 2:18) 그분 안에서 육신적인 생각, 패역한 마음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생각을 두심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롬 8:4). †

그리스도의 일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상한 자를 싸매고, 자를 모으는 일이다.

헤어졌던 거죠. 그분의 이름은 “우리과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베드로후서 1:4).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시간이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차 ~ 가 되는

중재자는 중재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죄 이전에 중보자이셨다

세상에 들어가 죄가 더 이상 우주에 존재하지 않고 용서할 필요가 없을 때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있느니

라.” 그것은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생명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모든 창조. 그러므로 그분은 생명의 빛이 빛을 비추는 수단이시며 중보자이시며 길입니다.

우주를 비춥니다. 그분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천

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발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력을 공급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계속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골 1:14-17). 우주에 생기를 주고 유지하는 힘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과

똑같습니다. “이제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아멘!" (엡 3:20, 21). (계 4:11을 5:9와 연관지어 보라.

NT).

1)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6)

↑: \_\_\_\_\_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어긋납니까? 절대로; 만일 의를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납니까? 절대 안돼!” 그렇다면 법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예”이십니다(고후 1:20).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과 율법이 결합된 것을 발견합니다.

약속하다. 우리는 율법이 약속에 어긋나지도 않고 어긋나지도 않는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언문이

법은 "협약"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확인 결과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반대되지 않습니다.

약속도 하지 않고 어떤 요소도 넣지 않습니다. 왜? 단순히 법 때문에

약속에 포함됩니다. 성령의 약속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히 8:10)고 말씀하십니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11; 2:25-29; 빌립보서 3:3)

율법은 약속을 확대합니다 -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이 정의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당신은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너희 백성아”(사 51:7). ↑

법이 요구하는 정의만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이다. 얻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의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롬 9:30-32). 그러므로 정의가 클수록

율법이 요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크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느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불과 구름과 흑암 중에서 큰 소리로”(신 5:22),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와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하나님의 율법의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함과 위엄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여 놀라운 일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크니 이는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공의를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음이니라  
그를 신뢰하는 사람. 율법을 주신 귀청이 터질 듯한 목소리는 그와 같으니라  
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사 13:1).  
40:9). 하나님의 교훈은 약속이다.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주십니다!  
그분께서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죄에서 우리를 보호할 것임이 아니라  
교훈.

정의와 생명 -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정의는 참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입니다.” 저것  
정의가 생명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죽은 이론이나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교리이지만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므로 그분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법  
두 돌판에 쓴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느니라. 돌보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쓰여진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 법도는 다 완전하나 그 말씀은 완전하시도다  
돌에 새겨진 문자로 쓰여진 문자는 스스로 번신할 수 없습니다.  
행동. 율법을 문자로만 받는 사람은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으며,  
죽음(고후 3:9). 그러나 “말씀[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살아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법은 생명이고 평화이다. “성령의 사역”(고후 3:8)으로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법이 인정하는 정의의 삶.

21절은 약속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공포에 수반된 모든 상황 - 나팔,  
음성들과 지진과 불과 폭풍과 번개와 천둥과 사망의 장막이 두루 있느니라  
산에서 - 율법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롬 4:15;  
에페. 5:6). 그러나 율법이 진노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은  
율법은 선하며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0:5)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낙담시키  
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안 돼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율법에 순종하게 하고 시내산의 공포는 그들을 다시 맹세하게 하려고 계획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사백삼십년 전에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남을 맹세

구주를 통하여 오는 정의의 보장이므로 항상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법을 배우십시오 - 예수님은 보혜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한복음 16:8).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정신이  
그들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막 2:17). 사람이 인식해야지  
도움을 받기 전에 귀하의 필요 사항; 당신은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약을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는 정의의 약속이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하시는 일의 첫 번째 부분은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아래에 두었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있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라”(갈 3:22).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나니”(롬 3:20). 영형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지식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1절)  
요한복음 1:9).

그러므로 율법은 성령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을 유도하는 활동적인 행위자입니다.  
약속의 충만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목숨을 구한 사람을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당신은 받게 될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배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볼 것이다  
경고의 음성으로 경고를 받은 자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되리라.  
그분은 사편 필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헛된 생각을 미워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19:113).

1) 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24; 로마서 10:4)

ㅏ:\_\_\_\_\_

\_\_\_\_\_

\_\_\_\_\_

## 수요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 갇혔느니라.

8절과 22절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하십시오.

죄 아래 있게 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는”(22절). “성경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르시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8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바로 그 분이십니다. 물론, 무엇입니까? 법에 갇힌 사람은 죄수입니다. 지상 정부에서는 범죄자가 법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즉시 체포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편재하며 언제나 활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그는 갇히거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온 세상의 형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

노아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불순종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소아과. 3:19 및 20). 그러나 다른 죄인들처럼 그들도 “소망의 갇힌 자”였습니다(사. 9:12). “여호와께서 그 성소의 높은 곳 곧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사 포로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자유케 하소서”(시편 102:19, 20). 그리스도 그는 “백성과 언약의 중보자시요 이방인들의 빛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열다 눈 먼 자에게 눈을 돌리며 포로된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고 어둠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느니라.” (이사야 42:6, 7)

아직도 주님의 기쁨과 자유를 모른다면, 내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멀지 않은 언젠가 오늘이었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영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의심과 망설임으로 가득 차서 온갖 변명과 핑계를 찾았을 것입니다. 회피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대답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령의 실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 어떤 논쟁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면 그의 부르짖음은 고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출 20:19). 그러면 "폐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벽이 당신에게 너무 가깝게 느껴질 감옥에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당신의 탈출이 당신을 질식사키는 것 같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무거운 석판 아래 산 채로 묻혀 있는 것이 생생하고 실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율법의 돌판이 그의 생명을 짓밟은 듯하고 그의 마음을 짓밟은 듯  
무자비한 돌의 손. 그 순간 큰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당신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목적으로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약속(갈 3:14). 이걸 붙잡자마자  
약속하면, 그것이 당신의 “성”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심”(천로역정). 그러면 감옥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짜을 이루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탈출한 것처럼, 유대감은 깨졌고,  
우리는 자유합니다”(시 124:7).

율법 아래, 죄 아래 -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나중에 나타날 믿음의 포로였습니다. 우리 알아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롬 14:23).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비록 당신이 죄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가져오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법을 범한 자들. 의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가운데서 행하는도다

1)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14)

↑: \_\_\_\_\_

24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  
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정교사”(aio)는 그리스어 표현인 payagogos, 즉 pedagogue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형  
교육자는 소년과 동행하는 임무를 맡은 가장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른 방해 요소나 게임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가 도망치려 하면 교사는 아이를 다시 길로 데려가야 할 것이고,  
물리적 교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튜터" 또는 "강사",  
그리스어 용어의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생각은 보호자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보호를 받는 소년은 비록 우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으므로 율법이 그의 후견인이 되거나 자지 않고 지키는. 법은 너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므로 “결코 악인을 무죄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리라”(출 34:6, 7). 즉, 당신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쁜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법은 떠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목요일

그리스도 안의 자유 -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이다”(요한복음 10: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와 목자이시니라. 인간은 자신이 우리를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접힌 부분은 자유에 장애물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이다. 영형 그리스도의 우리는 넓은 곳이고, 불신앙은 좁은 감옥입니다. † 죄인의 생각의 폭은 결코 좁은 폭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영형 진정한 자유사상가는 “모든 성인과 함께, 그 폭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그 사랑을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다”(엡 3:18, 19).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 제도. 오직 그분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울무처럼 엷매느니라”(잠 5:22).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린도전서 15:56). 사람을 죄인으로 선언하고 그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다. “법률에 따라 죄를 깨닫게 되나니”, 그리고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로마서 3:20; 5:13) 율법은 죄인의 감옥의 담을 드러냅니다. 그를 그녀에게 묶고 그를 만들어라 마치 죄가 당신의 삶을 빼앗아 간 것처럼 불편하고 죄의식에 의해 억압됩니다. 죄인 탈출을 위해 헛되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계명은 그 위에 떠오릅니다. 난공불락의 벽처럼 그들 주위에. 어딜가든 항상 찾게되는 계명에 이르시되 너희는 결코 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통하여 자유를 얻지 못함이니라 죄". 그는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법이 당신을 방해합니다 (찌르며) 그를 피할 유일한 길로 인도합니다: “약속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온전한 법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을 전합니다 -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구원. 인간의 모든 조직은 그리스도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보배"(학개 2:7)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입니다"(시 145:16). 오직 그분 안에만 불안과 불안에 대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그리스도는 -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들을 그분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려하면 인간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법은 인간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일깨워주며, 법은 계속됩니다. 그를 방해하여 쉴 틈을 주지 아니하고 도망할 길을 막고 인간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갇힌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피의 복수자, 그가 환영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당신은 죄인은 율법의 채찍에서 벗어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완성되었느니라 (롬 8:4). 율법은 누구든지 "의"가 없으면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빌 3:9), 곧 예수를 믿음이라.

1)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가? (갈라디아서 2:16)

↓: \_\_\_\_\_

25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26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은

율법의 충만함을 받은 그는 율법에 맞서 싸우는 대신에 행복했습니다. "믿음이 그에게 왔습니다." 11장

히브리서는 믿음이 처음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벨의 때부터 사람은

믿음으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믿음은 오늘, 지금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 다

기뻐하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오늘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라”(히 3:7e 8).

## 금요일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3).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으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세례는 “그분과 같은 죽음”입니다(롬 6:5). 우리는 부활하여 “새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갈 2:20 참조).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식별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 안에서 상실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변환: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처소를 포함하여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거처에 이르게 하는 죄가 높아지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세례를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형식이 아닌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곧 그분의 삶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 우리가 "세례를 베풀다"로 번역하는 그리스어 단어,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다. 그리스 대장장이는 자신이 만든 재료에 물을 부어 세례를 주었습니다. 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부는 옷을 세탁하기 위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은 모든 사람이 물에 손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네, 다들 자주 이용했어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세례당 - 또는 탱크 -. 이로부터 우리는 단어를 취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는 곳이었던 세례당 물 속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표현은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분의 삶에 비하면 우리는 비천하고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볼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바라니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음이라 더 이상 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로 죽기까지 하였느니라”(롬 6:4).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베드로전서 3:21),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리라.”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롬 5:10).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를 구해줍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의미합니다(벧전 3:21). ~ 안에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세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후보자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죄를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그때 나타나는 생명이 증언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죄의 옛 생활을 버리고 의로운 새 생활에 순종하십시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것”(베드로전서 3:21)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몸의 외적인 깨끗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NT Inter.), 영혼과 양심의 정화. 씻을 수 있는 열린 분수가 있어요 죄와 더러움(슌 13:1), 그리고 이 근원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다. 인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시며, 그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다. 죽임을 당하였느니라”(계 5:6). 마치 상처난 쪽에서 흘러나온 것과 같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히 9:14) 그분의 상처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요 19:34).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셨다 교회에 다니시고 그 여자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은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물로 씻음으로써[문자적으로: 말씀으로 물로 목욕함]”(에베소서 5:25 및 26). 물에 장사됨으로 신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수 곧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도록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피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으로만 나타나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느니라.

1)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로마서 6:4,8,12)

↑: \_\_\_\_\_  
\_\_\_\_\_  
\_\_\_\_\_

토요일

28 여기에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습니다. 노예도 자유인도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차이가 없느니라”(롬 3:22; 10:12).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므로 모두가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려고 했던 사람은 국적(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별(남성 또는 여성) 또는 사회적 지위(주인 또는 노예)에 따라 등. 그러나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품종이나 상태를 수입하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는다: 후손이 여럿이요 한 사람으로 말함 같으니 또 네 후손은 그리스도이시다”(갈 3:16). 자손은 한 명 이상은 없으나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씨”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본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유업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엡 1:10). 언젠가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분열을 종식시킬 것이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국적, 계급, 피부색의 차별이 없습니다. 영형 Christian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터키어, 중국어 또는 아프리카인을 생각합니다. - 단순히 한 인격체로서,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종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유대는 상호적으로 강화되고 더욱 강해집니다.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1)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2:13-15)

↑: \_\_\_\_\_

2) 묵상하기: 적대적인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17, 18)

†: \_\_\_\_\_

---

---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각각 고유한 개성이 있지만 항상 특정 측면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성. 인간의 몸에는 많은 팔다리가 있으며 모두 다릅니다. 그 특성상. 그러나 우리는 몸의 완전한 통일성과 조화를 관찰합니다. 인간은 건강한 상태에 있고, 또한 “새 옷을 입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만들어진; 그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 자유인;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만유이시니라”(골 3:10, 11).

## 7 입양 - 1 부

---

황금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14, 15)

### 일요일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되 소년이면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니라

2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습니다.

이전 장은 누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로 끝납니다.

상속인. 4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려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소년이 가장 큰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자 그는 하인(또는 노예)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그는 결코 상속 재산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분까지 도착하면 그는 하인으로 살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4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나오는 “소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처한 상태를 가리킨다.

“아들로 입양”(5절)되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소년들 변덕스럽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고,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간교함으로 속이는 것입니다”(에베소서 4:14).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우리의

회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육체의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성은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니라”(엡 2:3).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위함이니

눈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그리고 세상과 그 욕망

통과하라”(요일 2:16, 17).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

수가 되는 것임을 모르십니까?” (야고보서 4:4) 그것은 ~로부터

현 악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유전과 율법을 좇아

세상의 초등 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골 2:8). “아래의 구절”

세상의 초보”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걷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생활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생각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느니라(엡 2:1-3). 이것

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묘사된 것과 동일한 노예 제도입니다.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갇혔”을 때에는 “죄 아래” 갇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가진 것이 없는 자라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소망이 있느니라”(엡 2:12).

1) 개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속하며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14)

↑: \_\_\_\_\_

## 월요일

누구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글썄, 언제

처음 창조된 사람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눅 3:38).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율법의 보호를 받았고 엄한 율의 보호를 받았나니

우리가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깨어 있고 복종해야 합니다. 무엇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종노릇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느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죄를 지으십시오. 방황하는 자와 방탕한 아들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아들이니라  
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엡 1:6). 현재의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증거가 제공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죽을 것입니다. "때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평행 표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때가 되자 그리스도께서 악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를 위한 구원  
그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았던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에.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이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언제든지. '때가 차매'는 그 때를 가리킨다.  
예언에는 메시아가 나타나리라고 예언하였거니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느니라  
남자들은 언제나. 그것은 “창세 전부터 알려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었느니라”(베드로전서 1:20).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 자신을 계시하는 데에는 복음의 일반적인 목적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시고”(히 7:25), 앞으로도 항상 살아 계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그것은  
“영원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히 9:14). 그러므로 이 희생은 영원하고 현재적이며  
어떤 시대에도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1)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요한복음 1:12)

↑: \_\_\_\_\_

## 화요일

“여자에게서 태어나” -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남자  
진본인. 그분은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겪으시고 살았습니다. "영형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한복음 1:1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이므로 자신을 인류 전체와 영원히 동일시하셨습니다. 노동조합  
그건 절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올법 아래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형제들과 같이 되어 그 말은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히 2:17).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것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느니라”(사 53:4). 우리를 데려갔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마태복음 8:17). “우리는 모두 길을 잃습니다.  
양은 각각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양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모두”(사 53:6). 말 그대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 어깨에서. “그는 죄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느니라”(고후 5:21).

1)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와 얼마나 비슷하셨는가? (히브리서 2:17)

↑: \_\_\_\_\_  
\_\_\_\_\_  
\_\_\_\_\_

## 수요일

단어의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고 언제 생각해도 거의 생각되지 않는 정도  
그는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전체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분 자신을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닿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군인이 다른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체는 완  
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완전히 우리 대신 오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져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넣어보자  
우리의 쓸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그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무(無)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짐은 오직 그분께만 머물라.

우리는 그분이 “올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신 방식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영형  
그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다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희생제물의 필요성이나 희생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들에게는 유대인들만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유대인만을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기 전에 -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구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본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서 정죄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의인이요 죄인이니라”(마태복음 9:13). 그러나 법은 오직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과 그 관할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 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그가 우리를 구속하여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다  
법에 대한 순종.

- 1)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23, 24)

↑: \_\_\_\_\_

## 목요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니라”(요일 3: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우리가 어렸을 때”)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그 상황에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에 대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영원하신 분의 것”(사 30:9). 예수를 믿고 “아들”로 입양됨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순종하는 자녀 같이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악한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무지(베드로전서 1:14).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사편 40:8).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사람이 되신 이후로

대용, 말 그대로 우리 자리를 대신하는 것, 우리 대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삶을 살면 그분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양을 받았을 때.

- 1)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상속자가 된 자들은 율법을 계속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디도서 3:3-7, 요한일서 3:9, 10)



↑: \_\_\_\_\_

## 금요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이면, 너도 다음 세대의 상속자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성령이 마음에 거처를 마련할 때 얼마나 큰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시는지! 좋아하지 않는다 임시 손님이지만 단독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하여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려 함은 그 소망대로 혼란케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라”(롬 5:1, 5).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영이니라”(롬 8:16).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서 증거하시느니라”(요일 5:10).

“아들”[또는 “소년”]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종”.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소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지정된 때[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자들에 관하여는 그들은 감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히 5:14). 약속은 그들과 또한 “먼 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행 2:39)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베드로후서 1:4). 하나님의 자녀. “진노의 아들들”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됩니다. 영형 그리스도인은 “종”, 즉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죄의 종이 사탄을 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인의 성격에 따라 다름 그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아들인 하나님의 종은 죄의 종이고 종입니다. 사이 죄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는 못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유의 아들에게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가 얻은 승리를 고려합니다. “오래 참음이 더 나으니라

전쟁의 영웅보다 그의 정신을 지배하는 자보다

도시”(잠 16:32).

묵상할 내용: 로마서 6:16-22

## 토요일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방향할 때 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가장 일상적이고 비천한 일을 맡은 종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인의 것.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를 보고 달려가서 그를 잡으려고 달려갔다.

비록 그가 모든 권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들, 즉 상속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산.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라 불릴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우리는 유산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다음과 같이 받으신다.

자녀이며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이제는 하늘 곧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리라”(엡 1:20)

21) 그분은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

공활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함이라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엡 2:4-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함께 계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높이셨습니다”(누가복음 1:52). “가난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티끌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높여 귀인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의 것이요

세상이 그 위에 앉았느니라”(삼상 2:8). 세상에 부와 재산을 가진 왕은 없습니다.

주님을 그분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가장 가난한 필멸의 인간의 힘에 필적하는 힘입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1)

↑: \_\_\_\_\_

\_\_\_\_\_

\_\_\_\_\_



## 8 입양 - 2 부

---

금절: “그 날 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히브리서 10:16)

### 일요일

8 그러나 너희는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섬겼느니라  
신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간 것 같이 너희도 인도함을 받았느니라”(고전 1:1).

12:2). 갈라디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으며

가장 타락한 미신의 노예입니다. 기억해 이 노예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전 장에서 연구한 것: “율법 아래” 감금되는 노예 제도.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개인적인 경험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죄의 노예 제도.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느니라.

죄를 짓는다”(요한복음 8:34).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요일 3:8). “무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고전 10:20). 무엇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니고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배교할 때, 그는

이교도.

왕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그 다음에

우리도 옛날에는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며 결길로 가고 온갖 일에 종노릇하였더니

정욕과 쾌락을 즐기며 악의와 시기를 품고 미워하며 서로 미워하며 지내느니라.”

(디도서 3:3).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봉사하였더니]

본질적으로 신이 아닌 사람들.” 사랑이 잔인할수록 더 억압적이다.

노예 제도. 자신의 노예가 되는 공포를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패[직접 부패, 사탄이 개인화한 부패]?

9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사모하는 저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제공하다?

남자들이 감옥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 61:1).  
죄수들에게는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라”(사 49:9).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해의 빛을 보고  
정의를 추구하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 그들은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다시 사슬의 팽팽함을 느끼고 싶어 하며, 힘든 일을 선택합니다.  
나의 죄. 확실히 흥미롭지 않은 장면입니다. 남자는 보여줄 수 있다  
죽음 그 자체를 포함해 가장 혐오스러운 것들에 대한 애착. 정말 생생한 묘사네요  
인간 경험의!

1) 일단 회심한 후 배교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둘  
베드로전서 2:20-22)

↑: \_\_\_\_\_  
\_\_\_\_\_  
\_\_\_\_\_

## 월요일

10 너희는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느니라

11 나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2 내가 당신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미지나 조각품 앞에 엎드린 사람만큼 확실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지  
당신의 현명함, 당신의 관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문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도 헛되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강한 자는 그 힘으로, 부자는 그 재물로도 그러하며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나를 알고 내가 여호와인 것과 내가 공홀과 공의와 공의를 행하는 줄을 알며

지구;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9:23, 24).

1) 갈라디아인들은 자신들의 일에 의지하여 절기와 절기를 지켰다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상태는 어땠는가?

신의 눈? (갈라디아서 5:4)

↑: \_\_\_\_\_

## 화요일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으니 너희도 나와 같기를 권하노니 너희가 내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약할 때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고기;

14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이 시험을 멸시하지도 아니하고 멸시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15 그러면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16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17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기는 하나 마땅한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18 열심을 내는 것은 선한 것이니 항상 선을 위함이요 나 있을 때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너와 함께.

19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수고하노라

당신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

20 이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목소리를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

사도는 그들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신이요, 남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구, 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신 “질그릇”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노력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의미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는 자신이 한 일이 헛된 것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형제들의 관심.

마음으로부터 “주님,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영광을 돌리소서”(시편 115:1).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언제 화를 내는가?  
당신의 메시지는 당신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거부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단어로 혼합하거나 대체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자존심으로 인해 공언자들을 타락시키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교회. 사람들은 제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일어나서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가 배척당하자 그들은 화를 내고 보복하였다.  
소위 "이단자"에 반대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만일 그가 하나님께 가면 그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권하셨고, 복수는 그것이 정당하게 속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1)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사실? (누가복음 10:16)

↑: \_\_\_\_\_  
\_\_\_\_\_  
\_\_\_\_\_

수요일

바울의 육체적 고통 - 성경에 포함된 부수적인 진술에서

서신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역사적 세부 사항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멈추는 이유  
건강이 악화되자 바울은 "성육신의 실증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고전 2:4) 그리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당신의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축복이 공개적으로 증언되는 주제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타났을 때(고전 2:1-5, 고후 10:10 참조)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음이라 너무나 간절히  
바울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의 풍성함을 인식하였으니  
그 눈으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알아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의 성실함에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그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였고 그들은  
그녀를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같은 진실을 폭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참고 자료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렇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상황을 언급하면서 개인적인 동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그들 사이에서 일할 때 불리한 조건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한 순간도 시야를 잃지 않았다  
서신의 목적은 "육신은 무익하다"(요한복음 6:63)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로 시작했다.  
정신." 바울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정 신체 질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와 가까운 실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육체로; 그러므로 그들은 받은 축복과 관련하여 그분께 결코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명한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얻으려고 한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주실 수 있는 노력! 우리는 이미 이 교훈을 배웠는가?

1)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영으로 또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 (빌립보서 3:3)

↑: \_\_\_\_\_

\_\_\_\_\_



## 목요일

당신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빛나는 얼굴이 기대되고, 유쾌한(즐거움) 간증이 전환하는 사람. 갈라디아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감사의 표현은 논쟁과 쓰라린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 기쁨도, 첫사랑의 따뜻함도 점차 사라져 갔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났어야 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가득 차서 날”(잠 4:18).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을 행위로 바꾸면, 빛이 꺼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5:11)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떨어졌다. 흐름은 결코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단조롭고 딱딱한 일상을 위해 우리는 길을 떠나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1) 우리가 생명의 길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14)

†: \_\_\_\_\_

## 금요일

21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나에게 말하십시오. 율법을 듣지 않습니까?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 그러나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느니라.

약속으로.

24 비유라 함은 이것이니 두 언약이니라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산이나라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이 됨이나라

26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27 기록되었으되 수고하지 아니한 너희는 기뻐하며 외치라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버림받은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 외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많은 사랑의 길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죽음.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자신의 눈으로 곰곰이 생각해 본 후 행동하고, 지속하고, 의도적으로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와 “장수”의 장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녀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 투옥되고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사람들은 - 갈라디아 교인들도 - 그러한 상태를 원했고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안 할 이유가 없지 법이 귀머거리의 목소리로 표현되는 한 그렇게 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그 종의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있느니라”(30절). 율법은 일을 좋아하는 자마다 죽으라고 명하였느니라 세상의 “약하고 가난한 요소들”. “그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니라”(갈 3:10). 불쌍한 노예는 버려야 해 “밖,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마태복음 25:30). “보라, 그가 오고 있느니라 낮에는 용광로처럼 타오른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모든 자 그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오는 날이 그들을 불사르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을 운명이다.” 그러므로 “의 법칙을 기억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에게 명령한 내 종 모세는 곧 율례와 법도”(말 4:1, 4).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 기독교인 또는 이교도는 사탄의 속박 또는 범법의 속박에 있습니다. 법의 - 그리고 "밖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느니라”(요한복음 8:34) 35). 그러므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형제들이 믿음을 버리면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약속의 상속자이다. “육신으로는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임이나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8).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육신으로 낳고 하나는 육신으로 낳으니

“약속”에 따라 그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늙어서도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충실히 지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11)

하갈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여종의 아이들은 언제나 노예, 비록 그들의 아버지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갈이 생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노예.

그러나 소년 중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자유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유 아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니 약속을 상속받을 사람.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분의 작품입니다.

1)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14-17; 에베소서 1:13, 14)

↑: \_\_\_\_\_  
\_\_\_\_\_  
\_\_\_\_\_

“그들은 두 언약을 대표합니다.” - 두 여자 하갈과 사라는 두 가지 조약. 우리는 하갈이 “종살이를 위해 자녀를 낳은” 시내산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하갈이 종의 자녀만 낳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선언됨 - 자유인을 낳을 수 없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속박하게 하려는 것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롬 4:15; 3:20).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그녀에게 순종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시내 산은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로 “종살이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자기 행위로 역사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슬을 끊는 힘. 그리고 법의 공포는 이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황.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경우, 그 사실 때문에 석방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법령을 읽어 주시오. 그를 감옥으로 이끈 법을 읽어보면  
포로 생활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을 노예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던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 한 확실히 그렇습니다.  
결코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러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백삼십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는 모든 일에 충분하니라.  
관점.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되었으므로 온 언약이니라  
“위로부터”(요한복음 8:23).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의를 약속하셨으니  
모든 나라를 포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이들을 해방시켜 행하신 모든 기적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소망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노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행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사람보다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니라”(출 19:5).  
무슨 조약을 말씀하신 겁니까? 분명히 이미 체결된 조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면  
만일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면 그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리라. ~에  
지구 전체의 소유자로서 그는 지구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서둘러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났느니라”(롬 4:12)면 그들은 결코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반포한 율법을 지키라 이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는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되었으나  
믿음의 의로움”(롬 4:13). 믿음은 정당화합니다. 믿음은 의인을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라면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들이 그의 의를 나타내었으리라. 시내산에서 율법은  
“법으로 말미암아” 공포된 말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끔찍한 천둥소리 없이도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 준 것입니다. 절대

누구든지 말로써 의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시내산에서 반포된 율법과 시내산 주변의 모든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진실이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로다”(시 105:45). 아니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것들을 지키십시오.

1)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히브리서 10:16, 17)

↑: \_\_\_\_\_

---

---

참고: 참된 계약, 곧 약속의 계약에서 인간은 십계명을 지킨다.

믿음으로 하나님.

## 9 입양 - 3 부

---

황금 구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한복음 8:34, 36)

### 일요일

두 조약 사이의 유사성 - 사도는 하갈과 사라를 언급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조약을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옛 언약 아래 있을 수 없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한 때가 지났다고 믿으십시오. 실제로 시간이 흘렀지만 “너희가 방탕과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하여 지나간 시간이 지나도 족하도다” (벧전 1:11). 4:3).

그 차이는 종과 자유인의 차이와 같습니다. †

하갈의 후손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노예로 구성될 것입니다.

반면 사라의 자유로운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노예 제도를 가져온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위의 언약이 있느니라

해방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법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에서 구속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자기 길을 가는 완전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라”(시 119:1). 그 축복은 자유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걸을 것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음이니이다”(시편 119:45).

1) 사도 야고보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고보서 1:25)

†: \_\_\_\_\_

---

### 월요일

두 언약 사이의 대조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서는 율법 자체를 다루어야 하고 위의 언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쌍날칼보다 예리하여 우리가 없이는 그것을 휘두르지 못하느니라

치명적인 결과.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중보자를 통하여” 법이 있습니다. ~에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성령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신의.

서신서 어디에서도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질문은 법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달성되는가입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의 몫이야

이렇게 하여 그 샅이 은혜로 되지 않고 빛으로 되게 하겠느냐? 아니면 그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까?

1) 하나님의 의는 그의 계명입니다(사편 119:172). 그 남자처럼

정의를 이루다? (로마서 9:30-32)

↑:\_\_\_\_\_

\_\_\_\_\_

## 화요일

시내산과 시온의 대조 - 언약이 두 개인 것과 같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들이 속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옛 언약에 속한다.

시내산. 그것은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성, 곧 새로운 도성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예루살렘(계시록 3:12; 21:1-5).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던 성읍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히

11:10; Apoc. 21:14, 19, 20).

큰 희망, 즉 모든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마음을 가리우나니

그들 중”(고후 3:14). 사실 그들은 아직도 시내산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조약. 하지만 그녀가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다. “왜, 당신은 불에 닿지 않았습니까

만져볼 수 있는 것과 타는 것과 흑암과 흑암과 폭풍우와 나팔 소리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그 명령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이라.  
술취한. 사실 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에 이르렀으니  
하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과 만국의 총회와 교회와  
하늘의 장자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것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말씀하시는 뿌린 피와  
아벨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니라”(히 12:18-24). 축복을 기다리는 것  
오늘날부터 예루살렘은 옛 언약과 시내 산에 의지하여  
노예 제도. 그러나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는 축복을 바라며 새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그것만으로 새 언약, 시온 산과 자유를 굳게 붙잡습니다.  
위의 예루살렘은... 자유니라.” 무엇이 무료입니까? 죄로부터; 그리고 “그녀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확신을 주라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위엄 있게 선포하신 그 율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시온산에 이르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아오라  
뿌려야 우리는 죄와 율법을 범하는 일에서 해방됩니다. '시온'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법이다. 그의 보좌에서 동일한 광선과 천둥과 음성이 나오나니  
(계시록 4:5; 11:19) 이는 시내산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도 동일한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략  
“은혜의 보좌”(히 4:16). 그래서 천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비와 은혜를 찾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은혜를 찾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에 유혹의 시간에 적절한 순간입니다.  
(계시록 5:6),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롬 8:2). 그것을 마시고, 그 속으로 뛰어들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1)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성취를 가리키며 어떤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스가랴 13:1, 2)

↑: \_\_\_\_\_

\_\_\_\_\_



왜 주님은 백성들을 시온 산으로 직접 데려가지지 않으셨는가?

율법이 의미하는 시내 산으로 데려가는 대신 율법을 생명으로 찾으십시오.

오직 죽음?

매우 논리적인 질문이고, 당신의 대답도 논리적입니다. 그것은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분의 목적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시온산으로 가서 홍해를 건너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감을 받았으며 그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비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저장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그를 당신의 거룩한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들어올 거야.

여호와여 주께서 그것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이 곳은 여호와여 주의 거처로 예비하신 곳이요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니이다”(출 15:13, 17).

만일 그들이 계속 노래하였다면 시온산에 아주 가까이 이르렀을 것이며

왜냐하면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시온에 이르러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슬픔과 불행이 그들에게서 도망하리라고

탄식하라”(사 35:10).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를 확증해 주었다(사 51:10, 11). 하지만

곧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으로 인해 불평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

그러므로 “그것(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이니라”(갈 3:19). 그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 당신의

죄악된 불신 - 시온으로 가는 대신 시내산으로 가야 할 필요성을 만들었습니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동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시온 호렙(또는 시내산)의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샘이 흘러나왔으니 그 반석은 곧 그

리스도시니라(출 17:6; 고전 10:4). 그 전에는

시온산의 실재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자는 다

모세와 같이 수건 없이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변화하여

정죄의 직분 대신에 의롭다 하심의 직분을 찾으라

(고후 3:9).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위협적인 구름 속에서도

번개와 천둥에서 나오는 진노가 의의 태양의 영광의 얼굴을 비추고

약속의 무지개를 만든다.

1) 바울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어디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12:22, 23)

↑: \_\_\_\_\_

---

## 목요일

28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하니라.

30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종의 아들은 결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3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입니다.

온 영혼을 위한 격려의 말씀!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종을 쫓아내라”는 말이 당신을 떨게 만듭니다. 너

자기가 종이 된 것과 죄가 그를 갇힌 것과 악의 줄로 얽매인 줄을 깨닫느니라

습관이 당신을 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가 귀청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평화를 선포할 때! 너의 목소리가 무서울수록

평화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운을 내다!

종의 아들은 육신과 그 일입니다. “혈과 육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고전 15:50).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그 뜻을 이루시리라

육체와 그 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세속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부패하여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8:21). 저것

너를 그토록 두렵게 한 그 말은 악령에게 명령하는 음성에 지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당신을 떠나도록 놔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세요. 모든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왕국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얻으세요

불멸의 존재로, 주민들과 함께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갈라디아서 3:28 및 314)

---

ㅏ: \_\_\_\_\_

---

금요일

“그러니 굳게 지키라” -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까? 자유로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율법을 마음에 두셨으므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셨습니다(시 40:8).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으니 죽음”(롬 8:2). 오직 믿음으로만 지키자.

이 자유에는 노예 제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이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 아니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도 제공합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마음. 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노예 제도 중 가장 흑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바로 그녀의 종살이로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속에 성령의 생각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교훈에 순종하는 데서 가장 큰 즐거움을 찾습니다. 영혼 새들이 산 정상 위로 날아가는 자유를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의 광대한 우주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총만 한 것이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유이다

감시를 받을 것이요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니라 그들이 취하는 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준수하는가? 노예 제도, 한계를 모르는 이 자유가 언제 당신의 것이 됩니까? 감옥 문 활짝 열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1) 성령이 사람을 “온전케”할 때 무엇을 가져오는가? (고린도후서 3:17)

ㅏ: \_\_\_\_\_

---

2)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요한복음 8:33,34,36)

↑: \_\_\_\_\_

---

나는 이미 어둠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당신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는 항상 그분께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자유와 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이 나를 이겼을 때  
그리고 진홍색의 풍요로움,  
내 아픈 영혼의 건강은.  
(TM 웨스트럽, #330)

토요일:

묵상할 내용: 로마서 8:14-23

## 10 성령은 구원을 쉽게 해줍니다

---

황금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1)

묵상하기: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율법은 의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법과 연결되어 있었고, 거룩한. 전체에는 신성의 인장이 찍혀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와 정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차 끝날 경륜의 사역도 영광스러웠다면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명을 주시고 성화시키는 영을 창조하시겠습니까?” (나 1, 238면)

### 일요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침내는 영생이라. 로마서 6:22

4장과 5장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해서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이 시점에서 텍스트가 분할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역사는 그분의 명령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감옥을 열어 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61:1) 그분이 행하신 기적은 그분의 사업을 실제적으로 예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토요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홀린 여자가 와서 18년 동안 병약한 정신으로 지내다가 그녀는 몸을 굽힌 채, 절대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자 그녀는 즉시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눅 13:10-13).

위선적인 회당장이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했다고 불평하자 토요일에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소나 안식일에 당나귀를 마시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무슨 까닭이나

이 아브라함의 딸은

사탄이 18년 동안 먹이를 잡았던 말입니까?” (16절).

언급할 가치가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여자를 묶었고,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설명은 우리의 조건에 잘 맞습니다.

그리스도:

(1) 우리는 사탄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그의 뜻에 포로”입니다(딤후 2:26).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요한복음 8:34),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요일 3:8). “악인은 그의 죄악에 묶이고 그 죄의 줄에 매이리라.”

(잠언 5:22). 죄는 사탄이 우리를 묶는 사슬입니다.

(2) 우리는 “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리 자신을 바로잡을 힘도, 우리를 묶는 사슬에서 벗어날 힘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롬 5:6)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약하다고 번역된 용어는 누가복음에서 “약함”으로 번역된 용어와 동일합니다. 그 여자는 아프거나 약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1) 죄에서 해방되면 열매가 맺히는가? (로마서 6:22)

아르 자형 \_\_\_\_\_

2) 죄인을 묶는 밧줄은 무엇입니까? (잠언 5:22)

아르 자형 \_\_\_\_\_

## 월요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음이나라 (갈라디아서 3:13)

1.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3:9)

아르 자형 \_\_\_\_\_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의 약점을 가져가시고 그 대가로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히브리서 1:1)

4:15).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마 8:17).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자기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서” 나셨느니라 (갈라디아 4:4, 5). 그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저주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병에서 해방시켜 주셨나요? 그녀가 들어오게 하려면 자유. 확실히 그가 스스로, 자유롭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가?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법의 정의를 집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사 능력을 가지시고 육체 위에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율법의 의를 지켜 행하시는 전능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여자는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붙잡았나요? (벧전 1:23) \_\_\_\_\_

아르 자형 \_\_\_\_\_

그 여자가 여전히 갇혀서 일어날 힘이 없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셨다. 현재시제입니다. 그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그 여성은 "몸을 펴지 못하고 몸을 굽혔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행위를 낳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사실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니요

사탄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굴복한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시고 바로잡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간단히,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혼에게 알리라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수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 화요일

“영원하신 이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모든 압제된 자를 일으키시나니”(시 145:14)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상환됨-우리를.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주가 오기 전에. 인간은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단지 처음 창조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요,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날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을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창 5:1, 2).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유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들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것을 제압하십시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땅에 기는 것입니다”(창 1:26-28).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지배권이 주어졌음을 봅니다.

인간, 남성 또는 여성.

1. 태초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는가? (히브리 2:7, 8)

이 도메인은 어떻게 분실되었나요? (로마서 5:12)

아르 자형 \_\_\_\_\_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히 2:8). 지금 우리는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되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를 보노니 이는

그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옵소서”(9절).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잃어버린 지배력의 저주. 면류관은 왕국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능으로 권능을 주어서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

당신의 손. 사람으로서 육신에 있었다가 부활하여 존재한 후에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가라”(마태복음 28:18, 19).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능력을 받았습니다.

죄.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 두셨느니라

2 -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6)

아르 자형 \_\_\_\_\_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8).

## 수요일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여 몸의 악한 정욕을 따르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6:1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에 대한 지배력.

그분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께로” (계시록 1:5, 6). 영광스러운 통치! 영광스러운 자유! 풀어 주다  
저주의 권세에 둘러싸여 있어도! 금세기의 해방  
악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엡 2:2)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6:12)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권  
위다.  
그가 “사단아 물러가라”(마 4:10)라고 명령했을 때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를 떠났습니다.  
즉시.

1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_\_\_\_\_

\_\_\_\_\_ (벧전 2:9)

하늘이나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우리 선거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소에 대한 힘입니다.

그들에 의해 통제되는 대신 우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배울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우리의 건강은 그리스도의 생명처럼 “속히 솟아오를” 것입니다(사 58:8).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라. 언어가 없는 영광스러운 자유

동정심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의 입의 영으로 그들의 군대를 따르라”,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도다. 보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시 33:6, 9).

2 - 별이 빛나는 궁창을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2 테살. 2:15)

\*\*\*

“그러므로 굳게 서라.” 이것은 우리를 같은 상태에 놔두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전의 발기부전이지만 그 자체로 사실의 성취를 가져옵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스스로 형성되었으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의 강사로 삼도록 합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그가 이것들을 창조하셨고, 그의 별들의 군대를 창조하셨으며, 그가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그의 능력이 강함을 인함이니라”(사 40:26). “에너지를 준다.

피곤하여 힘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게 하느니라”(사 40:29).

## 목요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없으시리라 (갈라디아 5:2)

여기에는 단순한 성찬식 이상의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할례. 주님께서서는 할례에 관해 많이 언급하는 이 서신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할례는 비록 의식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의무가 됩니다.

논쟁.

1 - 바울은 왜 우리가 할례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까?

관련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아르 자형 \_\_\_\_\_

문제는 어떻게 의(죄로부터의 구원)와 이에 수반되는 상속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를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그것은 그가 시도했을 때 그의 패배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라.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 “육체는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행 16:1-3).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일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았습니다. 할례나 다른 외적인 표를 위함이 아니라(빌 3:4-7), 디도의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제안한 것이지, 동의했습니다(갈 2:3-5).

단지 기존의 현실을 나타내는 표시여야 했던 것은 다음 세대는 이러한 현실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에서는 할례를 모든 종류의 “일”의 상징으로 제시합니다. 그 사람은 정의를 얻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이며, 성령과 대조됩니다.

이 진리는 확립되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희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즉,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즉,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분열되지 않으며, 존재의 영예를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구조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하고 유일한 존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자.

## 2 - 진정한 할례란 무엇인가? (빌립보 3:3)

### 아르 자형

---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왜곡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대용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자기를 자랑할 때 할례를 받은 그는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바울은 결코 율법을 비방한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의 능력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그녀에게 순종하기 위해. 율법은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그 요구가 너무 커서 누구든지 인간은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다. 진정한 할례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지, 육체를 신뢰하라(빌 3:3).

### 금요일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5:3, 4)

“저기요!”라고 누군가 외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파해야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너무 빠르지는 않아, 친구.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aul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3절)에서는 “완수해야 할 모든 율법은 빛진 자”라고 말합니다. 악은 율법도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에 빛을 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 차이를 감사히 여기십시오. 음식과 옷이 있으면 좋다. 빛을 지고 먹고 입을 수 있다. 매우 슬프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빛이 있고, 게다가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옷 입기.

채무자는 무언가를 빛진 사람입니다. 법에 빛진 사람은 정의를 빛지고 있다 그녀가 요구하는 것. 그러므로 율법에 빛진 자마다 율법 아래에 있나니 저주.

1. 성경은 모든 기록된 것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칭하는가  
법서? (갈라디아서 3:10)

아르 자형

---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그것은 영원한 빛의 저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법에 의해 빛지고 있다는 사실은 - “채무자는 이행해야 할 율법의 전부이다.”는 그가 율법 전체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한복음 6:29).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육체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그에게 이루어지리니 이는 그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도를 따라 행함이라 영혼.

우리가 믿음의 정신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 5:5)

이 텍스트를 여러 번 읽으되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미 무엇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약속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해합니다.

본문이 우리가 그 영을 가지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의를 얻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 성령은 의를 가져오십니다. “영혼은 이것 때문에 산다. 의로움”(롬 8:10).

2 -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외에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8)

아르 자형

---

성령을 받은 자마다 죄와 의를 깨닫게 하려니와 성령이 깨닫게 하느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직 성령만이 그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가져오는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입니다(롬 8:4).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임이니라”(롬 7:14).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기다리는 “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메모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의를 기다린다는 말씀이 아니니라. 그것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즉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 의를 소유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 토요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서 있는도다 또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 나라 (에베소서 1:13, 14)

이 점에 대해 간단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 1) 하나님의 영은 “약속의 성령”이다. 성령의 소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 또는 보증;
-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업이었습니다. 성령은 획득한 소유가 구속되어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유업의 보증이십니다(엡 1:13, 14).
- 3) 이 약속된 기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성되는데, 그 곳에서는 정의(베드로후서 3:13);
- 4) 성령은 의를 가져오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형태입니다(요한복음 14:16-18).
- 5)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져다주시는 소망은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소망이다.
- 6) 성령이 가져오는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입니다(롬 8:4, 7:14). 성령은 그것을 돌판에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느니라(고후 3:3).
- 7) 간단히 말해서, 율법을 순종할 만큼 충분히 믿는 대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여 율법의 의로 우리를 채워 주면 우리는 살아 있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망,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안전합니다. 다른 것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빌 3:9, 롬 3:23)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소망을 잃게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십니다(골 1:27).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5:6)

여기서 "가치"로 번역된 단어는 "할 수 있다"로 번역된 것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3:24, 사도행전 15:10, 6:10에서 각각 “할 수 있었다” 또는 “할 수 있었다”. ~ 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같은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화한다.” 그러므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무할례도 행하지 말라.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만이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를 받든지 무엇을 이를 수 없느냐? 더 이상은 없어, 하나님의 법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상태 또는 조건. 무할례자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할례를 받은 자는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할례를 자랑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사람은 할례받지 않았으나 둘 다 헛되었습니다. 믿음의 원리로 “제거됩니다” (로마서 3:27). 오직 예수 믿음만이 율법의 의를 이를 수 있으므로 율법의 의를 이를 수 없으니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할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어떤 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은 누구든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박해를 받으리요? 곧, 십자가의 스캔들은 소멸되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절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8a  
12)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니라(시 119:142). 갈라디아 형제들은 그녀에게 복종하세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나중에는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행함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롬 9:32).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느니라 채이기. 그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1 - 진실은 무엇인가? (시 119:142) (요한복음 14:6)

아르 자형

---

---



## 11 진리 에 순종함

---

골든 구절: 잘 달렸어요. 누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갈라디아 5:7)

묵상해 보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일의 일부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 그들은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이제는 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러나 이런 성격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다. 예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 기쁨, 유용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친교를 위한 거요 매일, 매시간 그분과 함께 -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계단 - 89쪽)

## 일요일

십자가는 언제나 불행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다 알려진 것 중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할례 곧 의를 행하는 것을 전파하였다면 “십자가의 수치”가 제거되었습니다(갈 5:11). 십자가의 스캔들은 십자가는 인간의 약함과 죄, 그리고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그분께만 의지하는 것은 이는 인간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자는 느끼는 걸 좋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좋은 삶을 살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즉시 불쾌감을 느낍니다.

2 - 갈라디아 형제들은 왜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32)

아르 자형

---

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 그러므로 육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선을 통해 서로 봉사하십시오.

14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갈5:13~14)

앞의 두 장에서는 노예 제도와 투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믿음에 이르면 우리는 죄 아래 “갇혔”고 율법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8:11).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진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시할 자유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율법을 무시합니다(요일 3:4). 만족시키다 육신은 죄를 범하게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롬 8:7). 사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용하여 다시 자유를 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법을 위반하여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각자 자신의 것을 섬겨야 합니다. 이웃이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 월요일

자유로운 온전한 율법을 살펴보고 지키는 자는 듣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25)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통치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류를 다스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위대합니다.

왕으로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의 낮은 계층에서 우리의 신민을 찾습니다. 요소들과 우리 자신의 육체 안에 있지만 결코 우리 동료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우리 속에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 왕궁에 계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종(빌 2:5-7). 그분은 또한 당신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이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주님이요 선생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요한복음 13:3-13)은 물론,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으라고 권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섬기리라(눅 12:37).

#### 1 - 법을 어떻게 준수합니까? (로마서 3:10)

아르 자형 \_\_\_\_\_

가장 큰 자유는 이웃을 향한 봉사에서 발견됩니다.

예수의. 가장 큰 사람은 가장 큰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따르면 가장 큰 봉사는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자기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사

누구도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서비스. 하느님의 종은 모두 왕입니다.

#### 2 -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주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형제이자 이웃입니까? (마태복음 20:27)

아르 자형 \_\_\_\_\_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 완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전함입니다. "사랑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괴롭히니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일 4:7, 8).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생명을 자유롭게 주면 법은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피조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노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요일 3:16).

사랑은 이기심이 없는 것

사랑은 봉사,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랑은 분명합니다.

그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점이다. 행복하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사랑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없음. 그것은 사악한 위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랑은 사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화요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  
익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원망하지 아니하며”(고전  
13:4, 5).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사랑의 유형,  
남편과 아내, 그것은 진정한 사랑보다 더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  
부나 지위를 얻으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위조된 결혼은 제쳐두고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 결혼 후보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행복합니다. 이기심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같은 비율. 이것은 세상이 배우기가 더딘 교훈이다.  
배우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걷기를 멈출 때에만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찾는 데 헌신합니다.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사랑이라고 알려진 것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  
랑은 결코 사랑인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명서입니다  
범주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으며 상황이 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따뜻하고 활동적입니다. 어떤 것도 글꼴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변적이고 불변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성 외에 다른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남자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가능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느니라.

1 - 참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왜 확신할 수 있는가?  
이타적인 사랑? 본문에 포함된 동사의 시제에 주목하세요. (로마서 5:5)

## 아르 자형

---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마치 누구나 사랑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랑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신의 이유. 사랑하는 사람이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그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어떤 이유로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사랑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존할 수 없다. 상황.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영형 사랑은 단순히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사랑 사랑받는 대상의 성격에 관계없이 그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나아갈 때, 말씀하신 내용이 참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삶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개념은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또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사랑하시느니라. 그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릇된 자요,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을 하며 악독과 시기과 가증함과 멸시를 받으며 살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매 우리 구주와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성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시니라”(딤후 3:3-5).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어찌하리요 보상이 있나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46)

2 -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48)

## 아르 자형

---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롬 13:10). 다음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확장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사랑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존재하는 유일한 사랑)은 전쟁과 다툼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누가복음 3:14).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군대가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동시에 충격을 가하는 대신 적과 접촉하여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를 주어라.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왜,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15 그러나 너희는 서로 물고 잡아먹으니,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도 서로에게.

16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 싸우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우나니 그리고 이들은 반대한다

서로: 너희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라.

18.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인들은 나쁜 충고를 따르고 믿음의 단순성을 버렸습니다.

저주 아래에 놓여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로. “혀는 불이다. 그것은 불의 세계입니다. 언어는 둘 사이에 위치한다.

자체를 더러워하고 온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온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인간 존재의 경력 자체가 불타 오르는 것입니다.

지옥이다”(야고보서 3:6).

칼보다 혀가 더 많은 해를 입혔나니 혀는 그렇지 못하니라

뒤에 난폭한 혀 없이 칼집을 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

혀를 길들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그들의 입이

그들은 축복과 찬양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처럼

그들은 최근에 받은 가르침의 결과로,

투쟁에 대한 축복. 서로를 세워주는 대신, 그들은 곧

삼키다.

수요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변태. 누구든지 자기의 정통이나 믿음에 대한 확고함을 자랑하지 말라  
논쟁하려는 성향을 품고 있거나, 도발하려는 욕구가 있을 때  
거기. 논쟁과 불일치는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표시입니다.  
어느 시점에 있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롬 5:1).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평안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서로를 잡아먹는 다툼을 낳은 '설득'  
방언들이 불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

### 1 –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라 큰 것을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3:5)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엄청난 차이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줄의  
기차는 처음에는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눈에 띄지 않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반대 방향으로 이어질 때까지. “누룩을 조금 넣으면 전체가 발효됩니다.  
파스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작은 오류에도 다음과 같은 세균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악.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그 중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죄가 있느니라.  
다”(야고보서 2:10). 단 하나의 소중한 거짓 원칙이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  
삶과 성격.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서 길을 잃고 있어요.

19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욕,

20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이단과

21 투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탐식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듣는 즐거움을 주는 목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고도 할 수 없다.  
사도는 “그리고 비슷한 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목록을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시하신 목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의 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은 사람에게 속해 있다  
자연. 이제 두 목록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목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지 않은 이교도들. 사실, 그것은 만드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11에서 제시한 죄 목록과 비교하여 이 죄 목록을 검토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1~5, 이번에는 마지막 날에 “경건의 모양”만 가질 자들의 행위를 열거합니다. 이 네 가지 목  
록이 다음과 같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곧 능력에서 외면할 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죄의 힘.

#### 목요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나타내지도 아니하였으니  
은혜를 입었으나 그 말이 희미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하여  
가려진. 그들은 현명하다고 주장하다가 화를 냈습니다. (로마서 1:1, 22)

1 - 사도는 육체의 죄를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합니까?(골 3:5)

아르 자형

---

"다른 점이 없다". 모든 사람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고전 15:39).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주민은 아담과 이브라는 한 쌍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셨느니라”(롬 5:12) 그러므로 어떤 죄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든 육체에 공통된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에는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한 분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시도다  
부르짖으라”(롬 10:12; 3:21-24). 세상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그의 죄 많고 타락한 상태 때문에 그를 폄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있습니다. †  
우리를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먼 누구의 공개적인 악덕에 대한 확인이나 지식  
(우리의 우월한 도덕성으로 인해) 기분이 좋으면 슬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창피.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 그 살인자, 주정뱅이, 방탕자에게서 나타나는 작품은 그저 작품일 뿐이다. 우리 육체의 것입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육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악한 일과 다른 성향.

육체의 일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매우 악하다고 간주되거나 적어도 적어도, 표현할 수 없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덕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물들 유사”는 나열된 모든 항목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니라” (요일 3:15). 분노조차도 똑같이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21, 22에 구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혼란 시기에는 살인. 그러나 누가 시기심을 죄악으로 생각합니까? 고려와는 거리가 멀다 극도로 죄악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를 장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간음, 음행, 살인, 음란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술취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끔찍한?

2 - 시기심은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처음에 이 느낌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인류 역사의? (창4:5~8)

아르 자형 \_\_\_\_\_

자기애, 즉 패권욕은 다른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건축물 육체의 가장한 일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인간의 육체이며, 이 육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하십시오. “죄가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창 4:7).

육신과 영의 갈등. 육체는 육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들은 서로 반대한다"; 즉, 그들은 전형적인 적대감을 갖고 행동한다. 적 둘. 그들 각자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고기는 부패. 부패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전 15:50). 육체가 회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롬 8:7, 8).

갈라디아서의 퇴행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산다. 갈라디아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통한 온전함(갈 3:3). 땅을 파서 별에 도달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 땅 속 갠리리.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은 아니지? 만일 그들이 결단력 있게 그리고 완전히 성령께 굴복했다면 그들은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영형 영혼은 그들과 싸우고 상대적인 통제권을 연습합니다. 일부에서는 때때로 그들은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여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들은 성령을 직면합니다. 육체가 통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영의 생각에 굴복할 때도 있고, 육신의 생각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롬 8:6).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이 약하여 모든 일에 불안정합니다(야고보서 1:8). 이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금요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갈 5:18).

성령과 율법

율법은 신령한 줄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세력에 팔렸느니라”(롬 7:14). 육신과 영은 적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는 “아니요 율법이 있느니라”(갈 5:22, 23). 그러므로 율법은 육체의 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범법자.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과 온전히 일치하게 하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 - 내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다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14)

아르 자형

---

논란은 꼭 지켜야만 했는지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아니면 법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지켜야하는지. 갈라디아인들은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아침하는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음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분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 주셨고,  
갈라디아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그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그들 자신으로 대체했을 때,  
그들은 즉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정의”입니다.  
율법”(롬 3:21)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율법을 지킬 것은 성령을 받는 조건이 아니요 오직 성령을 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느낀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습니다. 인정하다  
그것을 지키지 말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 그들은 말한다 - 아니요  
비록 법에 어긋나더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수를 해  
영의 생각을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육체를 혼란스럽게 하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다  
정신.

2 - 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시 119:18).

아르 자형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23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기쁨과 평안이 따르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롬 5:1, 11).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셨다(사도행전).

10:38) 또는 다른 곳에서 읽을 수 있듯이 “즐거움의 기름으로”(히 1:9). 서비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즐거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거룩하다”(롬 14:17). 역경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번영을 누리는 것은 당신이 아직 주님을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 말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요한복음 15:11).

사랑, 희락, 화평, 관용, 오래 참음, 관용, 충성, 예의,  
자제력은 참된 추종자의 마음에서 저절로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도 강제로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살지 않습니다.  
짜증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분노와 짜증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친절과 사임. 육체의 일과 육체의 열매의 대조를 주목하라  
성령: 선한 것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보물은 좋은 것을 맺느니라”(누가복음 6:45). 선함은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니  
오직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  
디아 5:24)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망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롬 6:6, 7).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갈 2:20).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의 경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피조물”(고후 5:17). 그러나 그는 그 외모대로 육신으로 사시나니  
그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롬 8:9).  
그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며 육신은 그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와 함께  
육체의 일로는 그는 죽었느니라.

1.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롬 8:10)

아르 자형

---

25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합시다.

26 사랑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을 욕심내지 맙시다.

서로에게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 산다고 믿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원리는 심연을 넘어 혼돈 속에서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생기가

인생의.” (욥 33:4). 같은 성령이 하늘을 지으셨느니라(시 33:6). 하나님의 영은 우주의 생명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 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는 존재합니다”(행 17:28). 우리는 생명을 위해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예배”입니다(롬 12:1).

참으로 놀라운 삶이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육체처럼 살며 육체처럼 살아요 정신이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은 아니야 영적이지만 자연적입니다. 그다음에는 신령한 것”(고전 15:44, 46)이다. 자연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고전 15:42-44; 50-53). 그러나 이생에서 자연적인 몸에서는 사람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미래의 영적 몸처럼 살아야 합니다. “너는 그렇지 않아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행하노니 만일 참으로 영이 주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롬 8:9).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한복음 3:6). 을 위한 자연적인 탄생에서 우리는 이 다섯 번째 장에 열거된 모든 악을 물려받습니다. 갈라디아서, “그와 유사한 것”. 우리는 육신적입니다. 우리의 부패 규칙. 을 통해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물려받으며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 후 정욕”(베드로후서 1:4). “그의 속임수로 타락한 노인 욕망”(엡 4:22)이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함이니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노라”(롬 6:6).

성령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함  
우리가 실제로 죽어 땅에 묻혔을 때보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육신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정의의 도구. 육체는 계속 썩어질 것이요, 계속 충만하여  
악한 욕망을 품고 항상 성령을 거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성령께서는 육체를 복종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흔들리리라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무엇을 재건합니까?  
우리는 멸망하고 스스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갈 2:18).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요한복음 17:2)를 갖고 계시며,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며, “이 사랑의 계시”이십니다.  
이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3:19). 사랑과 온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결코  
우리는 서로 자랑하고, 노엽게 하고, 시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음에서 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아무도  
다른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 22:17).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이 나타나셨으므로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영생을 얻으라”(요일 1:2).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후 9:15).

## 12 십자가의 메시지

---

황금 구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22, 23)

묵상하기: “오, 우리가 치르신 놀라운 희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든! 천국이 주시는 일과 에너지를 감상하는 경험을 하도록 합시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비용을 지출합니다.  
더 강력한 동기와 더 강력한 행위자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로  
올바른 행동에 대한 탁월한 보상, 천국의 기쁨, 천사들의 사회,  
아버지와 아들의 친교와 사랑, 우리의 모든 능력의 고양과 확장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강력한 유인과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께 사랑으로 가득 찬 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계단 - 21쪽)

## 일요일

성급한 독자는 분열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다섯 번째 장과 여섯 번째 장 사이에는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교리를 폭로하는 반면 영적 삶의 실제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큰 실수입니다. 성경의 어떤 것도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깊이 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모든 것. 동시에 모든 것은  
그것은 교리이다. 교리는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순수한 교리, 그는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리에 대해 일종의 경멸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마치 그것을 가볍게 언급한다.  
사변적인 신학의 영역에 속하며 실천적이고 대조되는 신학의 영역에 속한다.  
일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알지 못하고 욕을 끼치는 것이니 이는 깨끗한 교훈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된 교리는 강렬하다.  
관행; 그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의 혼란은 의심스러운 조건 선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무엇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교리라고 부르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교리는 없고 오히려 천박한 설교입니다. 복음에는 자리가 없다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설교자는 결코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얼마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에게 교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청취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교리이며,  
그리스도의 삶.

## 1 -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 2서 9)

아르 자형 \_\_\_\_\_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 적절하지만 이를 종식시켜 독자들이  
영혼. 그 목적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잘못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인도하십시오.  
영의 새로움. 서신의 앞 부분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육신의 일(죄)을 피할 수 없음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나 곧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실물로.

## 월요일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을 당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인도하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살피라. (갈라디아 6:1)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시작할 때에는 교만과 자랑과 독선이  
비판의 정신은 그들을 공개적인 논쟁으로 이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각 개인은  
그 자신이 판사가 되기 위해 법에 대한 그 자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적절한 높이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측정. 당신의 비판적인 눈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눈을 발견한다면  
규칙은 위반자에게 즉시 적용됩니다. 독선이 가득한 사람들  
그들은 형제들을 동료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정도로 보호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과 접촉하여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에서 우리는 이 장이 시작되는 권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신에 정죄하기 위해 결점을 찾는 것에서,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옳은 일을 하면 어찌 낫을 가리겠느냐? 하지만 일을 안 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를 다스려야 한다”(창 4:7). 영형 죄는 숨어서 부주의한 자를 공격하고 제압할 아주 작은 기회를 노리는 야수입니다. 그 이가 우리보다 강하나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사 그것을 지배하십시오.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롬 6:12). 그러나 가능합니다 (필요하지 않음)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도 이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그래서 당신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냥. 그분은 우리 죄의 희생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 세상이요”(요일 2:1, 2). 이런 식으로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재건; 거부되지 않습니다.

1. 실수하는 사람에게 관대함과 동시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 특히 우리가 범한 허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볼 때?(갈 6:1)

A: 그래서 우리는\_\_\_\_\_

주님은 양을 찾는 목자를 통해 그 일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족다. 복음 사역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다음에 달려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수천 명에게 말하는 설교자가 도착할 때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간이 없다 비록 낭비라고 여겨질지라도 너무나 소중해서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의해 한 영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노력하는 것 우리 중에 외로운 양을 찾는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벧전 2:24).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부드러운 진노를 그치게 하라”(잠 15:1).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기 위해 애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마음. 그분은 우리에게 그에게 와서 안식을 찾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의 쓰라린 멍에를 그분의 짐이라는 쉬운 멍에로 바꾸는 방법  
빛.

2 - 우리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범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담당? (고린도후서 5:19)

아르 자형

---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요일 4:17).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은 어떠한가 하며, 진정한 추종자는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  
그들이 그분께 자신을 헌신할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  
를 보내노라”(요한복음 20:21)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들에게 투자합니다.  
성령을 통한 그분 자신의 능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7). 그럼 싫어  
우리를 정죄하고 구원하라고 보내신다. 그러므로 책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에 빠지면  
없어졌어... 복원해.” 권고의 범위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합류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사 우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후 5:20). 천국에는 다른 직업이 없어요  
또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예가 수반됩니다.  
가장 하찮고 버림받은 죄인이라도 화해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임무  
하나님과 함께.

## 화요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6:2)

“영적인 당신”

오직 이들을 위하여 타락한 자의 복귀를 권고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의 것이 될 수 있다  
증인.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누구나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추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남자 형제? 누군가가 영적인 척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남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에 설정된 규칙은 다음을 생성하도록 계산됩니다.  
교회의 부흥. 누군가가 잘못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식을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에 직접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어때요? 내 상황은 어떤가요? 나는 비난하지 않습니까?  
같은 잘못, 어쩌면 똑같이 비난받을 만한 다른 잘못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잘못이 당신의 부재로 이어졌나요?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밀어내는 대신 복원할 수 있나요?” 이로 인해 개혁이 이루어질 것임  
교회에서 완성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자, 이미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난 자에게 갈 수 있는 상태로.

범법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관해(마태복음 18:15-18), 예수께서는  
“나는 당신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8절). 신이라는 뜻이다.  
자신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내리는 어떤 결정에도 복종합니다.  
가져가도 돼? 확실히.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도 의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의. 지난 2천년 동안의 교회 역사는 오류와 오류의 덩어리이다.  
부조리,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내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신령하고 온유한 정신으로 가득 차십시오. 그리고 각자가 말할 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마음과 정신에 있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의 입.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늘에 굳게 섰으니 너희가 무엇을 부르든지 그대로 되리라  
땅에서는 “하늘에서도 결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사항을 따르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와 정신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 -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확신하셨는가? (마태 18:15-18)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회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일 것인가?

아르 자형 \_\_\_\_\_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같이 서로가 남의 짐을 질 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 그의 율법을 이루려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피곤하고 우울한 사람들을 위해.

“그러므로 그가 모든 면에서 그 형제들과 같아야 합당하니...

열심히 노력했고 승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습니다(고후 5:21).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담당하시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2 - 예수님은 왜 유혹받는 모든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17, 18)

아르 자형 \_\_\_\_\_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같은 괴로움과 고통, 연민과 수치심으로 인해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도 같은 경험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같은 어려움 속에 엮드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탈출 경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경험을 통해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떤 느낌일까

죄는 분명히 죄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면

범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한 적 없어

내 평생 비슷한 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존심이 빠질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더 잘했을 텐데.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을 선택하셨는데, 오직 한 사람만 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어

더 이상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보내심을 받았습니.

죄를 자백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해야 한다면

기쁨을 나누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창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에서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다른 사람들을 근원으로 인도합니다.

## 수요일

왜냐하면 누군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각 자기의 일을 확인하라 그리하면 자기에게서만 영광이 있고 영광은 없느니라

또 다른. (갈라디아 6:3, 4)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이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되지 않은 무언가로. 오히려 완전한 검증이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나라

모인 것이 주 앞에 아무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무언가라고 믿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해를 끼칠 정도로 이런 일을 합니다.

주님의 사업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었지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 주인이니라”(요한복음 13:16).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모두 헛된 일이다

살아 있는 사람”(시 39:5).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다.

거짓말쟁이”(롬 3:4). 우리가 이전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실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살후 2:3).

그리고 4).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1.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후 2:3, 4).

아르 자형 \_\_\_\_\_

---

5 각 사람은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2절이 모순되나요? 별말씀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집을 서로 짊어지자, 우리 집을 그들에게 던지지 말자! “캐스트에 네 집은 영원함이니라”(시 55:22). 각자가 그 집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는 다음으로 이어진다.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든 인류의 부담입니다. 우리는 넣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 안에서 맡아서 우리 손으로나 마음으로 모아 던지느니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누군가.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검색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채 죄와 고통, 고뇌와 형벌의 집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은 돌아왔다 그것이 그들을 절망의 문턱에 놓을 때까지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문제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멀리 있는 분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연 위로 다리를 확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남자 (우리가 아직 약할 당시에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너희 집을 덜어줄 수 없느니라 자신의 팔. 오랫동안 우리는 비록 팔 길이에 불과했지만 무거운 짐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의 속으로 사라질 때 무의미함 -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화물 운송을 허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방법을 그분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짐을 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용하는 힘이다.

우리”라고 하면 됩니다!

2 -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20)

아르 자형 \_\_\_\_\_

---

이것은 나에게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그 비밀을 배웠다! 나는 그를 참여자로 만들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무거운 짐은 내가 직접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있다 세상에 아직 이 교훈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지 못한 많은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그는 다른 사람의 짐을 떠맡을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능하신 분”이 언제나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이 교훈을 배웁니다. 내가 잘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압제당함. 고난을 지고 그분께 나아온 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구제받지 못한 채 남겨진 질병. “이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였느니라”(마태복음 8:17).

그리고 밤에 군중이 누워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산이나 숲에 가서 (그분을 위해 사셨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새로운 생명과 힘의 공급을 얻으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네 자신을 증명해라  
같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너희는 이미 버림받은 자니라”(고후 13:5). “그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살아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느니라”(4절).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다 해도  
포기하고 넘어지면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터는 섰기 때문입니다.  
굳게 서라”(딤후 2: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른. 비록 당신은 약자 중에 가장 약자일지라도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성령의 짐을 지고  
불평이나 조바심 없이 당신의 이웃. 심지어 다음 중 일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형이 후회하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같은 일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노래는 여호와시요 여호와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사 12:2).

## 목요일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6)

의심할 바 없이 이는 주로 시간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라면  
사람이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지에 필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권고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는 반드시  
“모든 좋은 일”을 감사와 함께 나누십시오. 이번 장의 주제는  
공제. “서로의 짐을 져라.” 또한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물질적인 음식을 받으면 그 돈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리스도와 사도들 - 그리스도가 가장 크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 -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  
가난한 자들에게 극히 적은 자원으로 나누어 주느니라(요한복음 13:29)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를 보내어 보내달라고 제안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부양할 수 있다면 그분은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쥐  
너희가 먹으라”(마태복음 14:16). 예수님은 농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말한 것을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줄 것만큼은 가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는 가졌다. 그들이 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예수께서 친히 그 권세를 취하셨느니라  
빵을 만들어 제자들에게 주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은 그들이 그가 행한 것과 똑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희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3:16)

1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항상 지도자나 목사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태복음 14:16)

아르 자형

---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협력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지원으로; 마찬가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일시적인 것들에만 후한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결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거나 양떼 중 가장 약한 자에게서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사의 영혼에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하는 주님에 대한 기쁨과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걸 ~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귀하의 작업이 헛되지 않았는지 간단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증에는 주어진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즐겁고 겸손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은 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수백 명의 영혼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요일

7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느니라  
또한 거둘 것이다.

8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뿌리는가  
그는 영 안에서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원칙에 대한 설명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확,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이 일을 보면 그 씨가 밀인지 가라지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너희는 의를 따라 심고 사랑을 따라 거두며 너희를 위하여 의를 예비하라

새 땅: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우실 때까지 여호와를 찾을 때라

네게 임하리라”(호세아 10:12, 예루살렘 성경).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잠 28:26). 같은 것은  
13절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너희는 악을 발갈아 죄악을 거두었느니라. 너희는 거짓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네 힘과 네 용사들의 많음을 믿었음이니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른 남자. “영원하신 이를 신뢰하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예레  
17:5, 7).

1 - 우리는 행위나 구원에 관해 우리 자신이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잠언 28:26)

아르 자형 \_\_\_\_\_

---

인내하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육체는 부패하고 만물의 근원이 되나니  
부패. 자기 편의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육체와 마음의 욕심은 썩어짐과 사망의 열매를 거두리라. “영혼은

의를 위하여 생명을 얻었느니라”(롬 8:10, 예루살렘성경),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자는  
성령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지만 만약에  
영이 육체의 일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롬 8:13). 아주 멋진! 만약에  
우리는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산다. 예수님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싶으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25)

이것은 현재의 기쁨의 상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타락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난,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부족한 것. 아니요  
그것은 현재의 존재가 살아있는 죽음, 느린 고통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요한복음 4:14).

2 - 믿음을 잃을까 두려워 진리 전파를 중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박해를 받느냐? (마태복음 16:25)

아르 자형

---

이제 영원의 기쁨은 그의 것입니다. 당신의 즐거움은 날마다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집의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며”(시 36:8) 샘물을 마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쁨. 모든 것을 소유하라 욕망하는 자는 마음이 부르짖으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느니라 일단 나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사실 자신이 무덤과 무덤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패의 무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정말로 살기 시작할 때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때입니다.  
인생은 형언할 수 없고 영광스럽습니다.”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구주의 부드러운 음성

그녀는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남자들은 결코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빛 속의 천사는 아니다

그들은 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예수의 이름보다

(P. 카스트로, #124)

## 토요일

“너희도 너희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 드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일에 드리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롬 6:19).

기민한 군대는 항상 가장 귀중한 적의 위치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전략적. 이처럼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왜곡하여 낙담의 원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난 후에도 계속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의 전생의 죄의 결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영원히 그들은 옛 죄의 상처를 짊어지고 애통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얼마나 휘방하는 것이냐! 그게 자유 아닌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것을 제안하셨듯이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 빠지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지체를 드리어 주를 섬기게 하라 거룩함에 이르는 의로움이라”(롬 6:19). 만약 이런 식으로 정의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의 나쁜 습관 때문에 항상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의의 힘은 죄의 힘보다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천국처럼.

범죄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고 난 후 그는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사면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그의 수감에 수감이 채워진 30킬로그램짜리 쇠구슬을 발견했고 또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사슬로 발목을 묶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기어갑니다. "처럼? 무엇 않습니다 그 의미?"

- 우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놀란. "그들이 당신이 풀려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나요?".

"오 예!"라고 그는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유롭지만 이 공을 다음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과거의 범죄를 기억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 중 하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이것이니, 나의 어렸을 때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내 죄악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선하신 주여”(시 25:7).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실 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저희에게서 피하여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처럼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라 악한 정욕을 따르지 아니함이라”(베드로후서 1:4). 그 사람이 나무의 실과를 먹다가 넘어지니라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복음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죄에 대한 모든 어두운 기억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오직 선한 것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따르면,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로마서 8:9). 영형 성령은 육신의 권세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느니라”(엡 5:25-27).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개인의 죄가 아닌 죄에 대한 기억, 그것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인을 구성합니다.

## 13 십자가 의 영광

---

황금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9)

묵상하려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충실하고 희망을 갖고 영웅적이 되십시오. 모든 타격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충실도. 생명을 주는 근원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끌어내십시오. 남성다움, 여성다움, 즉 성화되고, 정화되고, 세련되고, 고귀해집니다.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 (MEI - p. 88)

## 일요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데 매우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을 잃습니다. 힘들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기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하신 것을 바라는 자들은 새로운 세력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걸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피곤할 것이다(사 40:31).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주제는 단순히 우리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라. 그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리라.” 땅에는 의로움이 있느니라”(사 42:4). 비록 그가 치료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감사입니다. 이로 인해 그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러 왔어, 아니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네 씨를 뿌리라. 오후에는 손을 쉬지 마십시오. 이것과 이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둘 다 좋은지라”(전 11:6).

1 -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에 대해 말해? (전도 11:6)

아르 자형

---

우리가 얼마나 거들 것인지, 무엇을 심을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확할 것입니다. 그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빼앗겨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져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거들 것이다! 내일의 파종은 성공할지, 무엇을 위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늦었는지, 아니면 둘 다 그렇게 할 것인지. 하지만 둘 다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는  
둘 중 하나가 성공할 것입니다... 아니면 둘 다!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가 아닌가? 지구는 할 수 있다  
가난해 보이고 시존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최악의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수확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우리가 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에 수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형제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굳건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5:58).

## 월요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갈라디아 6:10)

이를 통해 우리는 사도가 물질적인 도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영적인 것과 반대로 자연적인 것, 즉 자비를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장 작은 축복조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보상을 받을까?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빌려주면  
너희가 다시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무슨 상을 주겠느냐? 또한  
죄인은 죄인에게 꾸어 주되 그만큼 돌려받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원수들을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고

그리하면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시며 악하다”(눅 6:33-35).

1 -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지만 주로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여자, 6:10)

아르 자형

---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운 특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야 할 무거운 의무입니다. 우리는 불쾌한 일을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용어. 누구도 상처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좀 잃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이길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약간의 금액, 또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를 고려하십시오.

그러나 기회는 모색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수고스럽게 수색을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사도는 우리에게 동등하게 구하라고 권고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법입니다. "나는 ~하고 있었어 좋은". 그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 전국을 걸어서 여행했습니다.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이라"(행 10:38).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세상 끝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1 내가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보여준 열심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습관과는 반대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그 일부를 자신의 손글씨와 손글씨로 표현합니다. 4장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바울은 시력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막지 못하느니라. 항상 필요함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런 상황을 이용했다.

바울의 이름으로 교회들에 거짓 편지를 써서 교회를 혼란케 하였느니라  
형제들(살후 2:2).

2 - 바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보낸 것처럼 가짜 편지를 썼습니다. 너  
엘렌 굴드 화잇이나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Apoc을 읽어보세요. 22:18 및 댓글:

아르 자형

---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온 것인지 아닌지, 편지의 본문을 쓴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인사말과 서명을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니  
그러나 긴급함이 너무 커서 그는 아마도 직접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전체.

## 화요일

육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  
요합니다. (갈라디아 6:12)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남자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  
여호와께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거짓 형제들이 행하는 할례  
갈라디아인들이 의가 아니라 독선을 신뢰하도록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는 오직 “지식과 진리의 본체”인 율법만 있었습니다(롬 1:1).  
2:20).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은 육체를 위한 씨를 “편리하게”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  
빈 파종에는 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 아니하는 의인이 되었느니라

1 - 당신은 목회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 때,  
영광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지도자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6:12)

아르 자형

---



### 13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아직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성령의 법을 거스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 8:8). 그러나 그들은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개종합니다.

그들이 지지하는 개인.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이기면 그렇게 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로다”(마태복음 23:15). 그런 주인들은 영광을 누렸다.

그의 “개종자들”의 육체. 일정 인원이 가입한 경우

“우리 교단”에, 그 해에 비해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남자들에게는 숫자와 외모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녀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는 세상이다5. 서신은 시작된 대로 끝이 나며 이 “현재”가 발표됩니다.

나쁜 세기.” 오직 십자가만이 이 해방을 완성합니다.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2 - 우리가 “영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14)

아르 자형 \_\_\_\_\_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여, 재물이 풍부한 자여 담대하라”(렘 9:23). 왜 자랑하면 안 되나요?

당신의 지혜는 현명합니까? 네 지혜가 네 것인즉 그것은 어리석음이로다. "†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고전 3:19). 어떤 사람도

자랑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겸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겸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대.

권력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모든 육체는 풀이나라”(사 40:6). “확실히 헛된 일이야 모든 살아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도다”(시 39:5). “남자는 그저 숨결일 뿐, 너무해 부자만큼 가난한 사람. 저울에 모두 함께 달아보면, 그 무게는 타격”.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느니라”(시 62:9, 11).

부를 바라는 것은 “불확실함”입니다(딤후 6:17). “사람이 수고한다. 그들은 간다; 그는 누구에게 복을 주는지 알지 못하며 재물을 쌓느니라”(시 39:6). “눈을 고정시켜야 해. 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독수리 같은 날개를 창조하였은즉 하늘로 날아갈 것임이니라”(잠 13:1). 23:5).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헤아릴 수 없고 영원한 부(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부와 지혜와 권력이 모두 부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 수요일

자랑하는 자는 나를 깨닫고 아는 것과 나는 땅에 인자와 공의와 공의를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자랑할지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24)

이전 구절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같은 영이 두 사람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한 곳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영광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요 17:3)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인간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을 본다.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십자가가 창조물 전체에 나타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조되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전 1:18). 하나님은 약함에서 강함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구원하시 죽은 자라도 안식하게 하시느니라 희망에. 그토록 가난하고 약하고 죄 많은 사람, 그토록 타락하고 평가절하된 사람은 없습니다.

---

이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가 처한 바로 이 상황에서 그에게 닿아 있습니다. 수치심과 타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나니 그 안에도 있느니라 영원한 영광의 이유.

1 -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_\_\_\_\_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열망\_\_\_\_\_ (고전 1:18)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박는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십시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야고보서 4:4).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멸하셨습니다(엡 1:10).  
2:15, 16).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아 있느니라”(요일 2:17). 그러니 세상이 지나가도록 놔두자.

나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세상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신성한 사랑  
  
그것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아, 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까!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오, 충만한 은혜,  
  
불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V. 멘도사, #266)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요한복음 12:32)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암시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빌 2:8, 9).

그분은 죽음을 통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려진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욕과 수치를 의미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옵소서. “권력을 위해 하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말은 온 우주를 지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 목요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도리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6:15)

구원은 인간의 상태가 어떻든,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 것. 그는 할레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멸망했고, 할례를 받아도 아무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유일한 가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이를 "새 창조"라고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입니다. 피조물”(고후 5:17);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롬 6:3).

1 -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5:17)

아르 자형 \_\_\_\_\_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만소 코르데이로, 당신은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우는 영혼은

주님, 당신을 위해 애타게 한숨을 쉬십시오.

(M. 마빌라드, #95)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를 만든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봅니다. 때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 “새벽의 모든 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찬양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욘 38:7).

십자가의 표시. 지금까지 고려한 텍스트를 나열하십시오.

- (1)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입니다.
- (2)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 (3)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그분 외에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4)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 속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창조도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권능이 바로 그이시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은 창조하는 능력이며,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시면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우리가 이 새로운 창조를 발견하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변하는 것을 막는 힘이다 저주로 인해 분해됩니다. 계절의 연속을 가져오는 힘; ~의 시간 파종 및 수확; 궁극적으로 지구 전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꽃이 피겠지 그러면 그는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카르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모든 사람이 영원하신 분의 영광, 우리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2)

“여호와와 그의 일들은 위대하며 그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목상하는도다. 화려 그 일이 위엄이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경이로움 중 기념관을 남겼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시 111:2-4, 성경 예루살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은혜와 긍휼. 이것은 그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낸다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집중되어 있는 곳.

“그는 자신의 경이로움에 대해 기념물을 남겼습니다.” 그 남자가 왜 그러기를 바라나요?  
그분의 놀라운 업적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잊지 말고 신뢰하도록  
주님의 구원. 그분의 뜻은 사람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목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옛세 동안에 땅을 만드신 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땅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이 일곱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그 안에서 쉬심이니라”(창 2:2,  
삼).

2 - 옛적에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표징  
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표징은 무엇입니까? (겔 20:20)

아르 자형\_\_\_\_\_

---

## 금요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창조자. 십자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우리에게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성화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오직  
당신의 신성한 능력은 이 위대한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안식일을 창조적인 일의 면류관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했고, 완전함의 봉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 참된 십자가의 표징임을 알 수 있습  
니다. 그것은 창조의 기념이며 구원은 창조이다: 창조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전한 일들을 발견하며,  
우리는 그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뜻이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합니다.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찾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토요일. 십자가는 우리를 태초, 즉 “태초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요일 1:1). 일곱째 날의 안식은 온전한 상태에 있다는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 창조와 마찬가지로 - 우리는 죄로부터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기가 너무 없어요!” 누구도 절대 못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동일합니다”(롬 15:3).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결코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셨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때에는 더욱 그러하였느니라.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상처에는 향유가 있고, 그 상처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가 짊어진 저주, 그가 겪은 죽음의 생명.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서 몇 년, 몇 달,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말하자. “나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고 나는 세상에.” 만약 당신이 진실로 이것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너무 가벼워서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유지됩니다. “만물이 그 안에 있느니라”

(골로새서 1:17)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 다른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통해 우주적인 죽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식물이 자라려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서 한 줄기 빛도 비출 수 없습니다.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손에서 떠나게 하느니라”(시 19:1).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 일부입니다. 불쌍하지 않아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묘사할 수 있는 붓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위에 언급된 행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물 속에 나타나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엡 1:19, 20).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롬 6:4). 그가 죽음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히 2:9).

1 -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나요? (로마서 6:4)

아르 자형 \_\_\_\_\_

---

이런 식으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완전한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무지개의 영광과 해 지는 곳에 있는 금구름의 영광과  
바다의 영광과 꽃이 만발한 들판이나 푸른 초원의 영광, 봄과 꽃의 영광  
장성하여 거두는 것, 싹이 나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의 영광, 완전한 영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지고 계신 것과 또한 그날에 그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내실 모든 것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16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모든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임하리로다

영광의 통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규칙입니다! 언급된다  
수업이 2개인가요? 불가능합니다. 서신 전체가 모두가 하나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총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만국의 머리시라  
권력 [제국]. 너희도 그 안에서 무할례로 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행한 할례로 우리가 죄의 몸을 버릴 때  
그리스도. 너희가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위하여  
그의 육체의 무할례로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였느니라  
죄를 짓는다”(골 2:10-13).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빌 3:3).

2 - 바울은 참된 할례와 세례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르 자형 \_\_\_\_\_

---

할례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이스라엘”은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약속의 조약을 알지 못한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각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엡 2:12, 19, 20).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음을 만날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무리가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리니  
천국에서”(마태복음 8:11).

## 토요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6:17, 18)

“표징”으로 번역된 것은 그리스어 단어 낙인의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암시한다  
수치심과 치욕.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노예들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이나 표시를 몸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징입니다. 파울로가 가져갔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손톱 자국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것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종, 곧 주 예수의 종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사람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를 소유하신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구매 한. 누구든지 그가 사람이나 육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자 하지 말라 이는 예수께서  
그분의 표징을 받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그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브랜드를 취급하시나요? 그러면 당신은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네가 헛되이 자랑할 것이요 교만하지도 아니하리라

십자가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습니까! 천국의 모든 영광은 이 가치가 낮은 물건 안에 있습니다. 아니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영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가 성령을 알아보지 못함은 그가 성령을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 십자가가 우리를 영광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동의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땅에서 천국으로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같은 하나님인 새 피조물이 있느니라  
"큰 의미에서" 좋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이 있느니라  
영원한 시대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있으니 이로써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세계로.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기를 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하소서. 십자가의 피의 길이 반복되고,  
내 죄가 씻겨지도록.  
  
십자가에, 십자가에 나의 죄가 박혔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선하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안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나의 잘못을 담당하셨습니다.  
  
(엘리사 페레즈, #90)